

與野모두...힘 실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4



삼성 '엔택트 공채' 스타트 10

코스피(종일)	1791.88 (+66.44P)	코스닥	597.21 (+24.20P)
환율(달러당 원화)	1299.30 (-1.6원)	금리(국고채 3년물)	1.052% (-0.014%p)

쌍용차, 안성 인재개발원 판다

작년말부터 판매 부진 '자금난' 마힌드라 투자 철회로 '이중고' 유동성 확보 위해 부지 매각 추진 예병태 대표 "정부에 지원 요청"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2300억 원 투자철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가 비핵심 자산 가운데 하나인 안성 인재개발원 매각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9면

6일 복수의 쌍용차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측은 경기 안성에 자리한 인재개발원 매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곳 인재개발원은 2014년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에 글로벌 쌍용차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신축했다. 지난해 말부터 내수는 물론 수출시장 판매 하락이 이어지면서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로 노사가 복지 축소에 합의하는 한편, '부산물류센터'를 포함한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같은 맥락으로 대전 연수원을 남긴 채 안성 인재개발원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자금줄이 막힌 만큼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른 수건까지 찌내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쌍용차는 2010년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 자리한 '인재개발원'을 매각한 바 있다. 마힌드라 자본 유지를 앞두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0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신세계에 매각,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후 신세계는 이 부지를 활용해 '스타필드 안성'을 추진했다.

쌍용차는 옛 인재개발원 매각 이후, 마힌드라 측에 관련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결국 2013년 대주주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했고, 이듬해 가을 시설을 개원했다. 회사가 자금난을 겪을 때마다 '인재개발원'이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돼 매각 대상이 된 셈이다.

쌍용차 안성 인재개발원은 대지면적 2만7117㎡, 연면적 4005㎡ 규모로 교육동(지상 2층)과 숙소동(3층)으로 이뤄졌다. 숙박시설은 물론 체육시설까지 갖춰 대규모 사내행사 및 교육, 글로벌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왔다. 인재개발원이 자리한 서운면 오촌리 일대는 대규모 골프장과

48.1cm짜리 투표용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진행된 6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검사하고 있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48.1cm에 달한다. ▶관련기사 6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주요 기업의 연수원 등이 들어서 있다. 인근 지역의 지난해 기준 1㎡당 공시지가를 고려하면 대지 가치만 60억 원에 달하고 건물을 포함한 자산가치는 100억 원이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쌍용차 관계자는 "안성 인재개발원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부산물류센터를 포함한 비핵심자산 매각 등 다양한 현금 확보 방안을 통해 단기 유동성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마힌드라는 3일 특별이사회를 열

어 '2300억 원 규모의 쌍용차 자금 지원 철회'를 결정했다. 다만 쌍용차가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3개월간 4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병태 쌍용차 대표는 이날 팽택공장 임직원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코로나19' 관련 2·3·4·8·10·18면

"어려운 시기에 수수료 개편...사과" 고개 숙인 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 "개선책 마련할 것" 4월 서비스요금 절반 환급하기로



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 같은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개편 논란에 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오픈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범준(사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6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고히 수용하고 고개 숙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 쫓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

다. 배달의민족은 즉각 새 요금제인 오픈서비스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 등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을 낸 금액의 절반을 상환제한 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앞서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3·4월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한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4일 후 '시동' 꺼지는 타다 1만2000명 일자리는 어찌나



차량 매각·비대위와 갈등 난제 수두룩 카니발' 적정가격에 팔아야 보상 해결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던 타다 베이직의 운행 종료 가 나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타다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 역시 차량 확보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300억 원에 달하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갈등과 차량 매각 등 난제들이 쌓여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6일 중고차 관련 업계는 타다 베이직에 사용된 카니발 차량이 서비스 종료 전후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다에 이용된 카니발 차량은 대부분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지난해 대당 3000만 원에 1000대를 매입했다. 차량 구매 가격만 300억 원을 사용한 셈이다. 타다 차량 대부분은 아직 중고차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일부 중고차 경매 시장에 수십여대가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차량에 비해 적다.

수원에 위치한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에 사용된 카니발 차량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현재 동급의 카니발 중고차 가격은 평균 2000만 원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다. 차량 매물이 많아지면 앞으로 가격이

는 차량을 적정 가격에 매각해야 그 자금을 기반으로 드라이버 보상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타다로선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차량 매각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매각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드라이버 비대위와의 갈등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달 19일 비대위를 출범하고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중단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서비스 종료를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1만 2000명에 달하는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비대위 측은 박재욱 소카 대표와 면담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드라이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 '그들만의 리그'

10억~20억 '급매물 속출'과 대조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시세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154㎡형은 지난달 10일 52억5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전 거래가인 51억 원(지난해 8월) 대비

2억5000만 원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 182㎡형도 지난달 4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북의 대표적 초고가 단지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도 전용 168㎡형은 한달 전 40억 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작년 7월 35억5000만 원에 거래된 지 8개월 만에 4억5000만 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정부가 시세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 돈을 줄이고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전반이 위축돼 서울 곳곳에서 '급매' 아파트가 출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J공인 관계자는 "공사가

격 인상으로 수천만 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예상되지만 사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가들에게는 이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물건이 많지도 않지만 나오는 대로 사려는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광장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대출과 세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고가 주택의 희소성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시장의 규제 상황과 관계없이 좋은 물건이 나오면 바로 매입을 결정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현대글로비스, 주특기 살려 '구호품 무상운송'

1000톤 규모 전국 각지 배송
재해구호협회 위생용품 기부
LG헬로, 농가 응원 캠페인
영주시 손잡고 풍기인삼 홍보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가 현대글로비스 운송차량에 긴급 구호 물품을 싣고 있다.

‘운송부터 판매, 기부까지.’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호인력 지원을 최대
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에 ‘희망브리
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준비한 긴급 구호
물품 1000여 톤을 무상으로 운송했다고 6
일 밝혔다.
구호품은 마스크, 손 소독제, 물티슈 등
으로 이뤄진 위생용품 키트와 즉석밥, 생
수 등의 식료품 키트, 의료진·구급대원을
위한 건강지원 키트(종합비타민, 피로회
복제 등)로 구성됐다.

구호품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와
의료진에게 2개월간 200여 회에 걸쳐 운
송됐다. 현대글로비스는 무상운송에 더해
이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
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물류 기업의 장
점을 살려 구호품을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전달해 현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있
다”며 “지역 사회와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
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두 힘내시길 바
란다”고 말했다.
LG헬로비전은 고객과 함께하는 ‘경북
농가 응원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10일간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에서 유심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경북 영주
시에서 재배한 ‘명품 풍기인삼’이 직배송
된다. 아울러 풍기인삼 홍보와 고객 판매
도 지원한다.
LG헬로비전은 지역 기반 사업자로서
경북 농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
고자 영주시와 손을 잡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면역 증진에 좋은 인삼 제품
소비가 늘고 있으나, 영주시 대표 특산물

인 ‘풍기인삼’의 경우 뛰어난 효능에도 불
구하고 재배 산지가 경북에 위치한다는 이
유로 최근 판매량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경북 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상
심이 큰 경북 농가를 위해 뜻깊은 캠페인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 LG헬로비전
과 고객들의 응원이 얼어붙은 농민의 마음
을 녹이고 농가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
이다”고 말했다.

우영상 LG헬로비전 모바일사업그룹장
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캠페인을 마련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참여와 애정에 기
반한 지역사회 응원 프로젝트를 이어가겠
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살한 기업’ (자
발적 상생협력기업) 프로젝트를 코로나19
국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살한 기업’인 삼성
전자의 스마트공장 기술 지원을 받은 마스
크 제조업체 4개사의 일일 생산량이 기존
92만 개에서 139만 개로 51%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화진산업 등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자사 생
산설비 전문가를 파견해 마스크 생산력 향
상을 지원했다. 업체들은 추가 투자 없이
생산량을 단기에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중기부는 손 소독제, 의료용 보
안경, 진단키트 제조업체들도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유창욱 기자 woogi@

화훼농가 돕는 공영쇼핑 “매일 1000명 꽃다발 증정”

꽃 소비 촉진 위해 농림부·중기부·농협과 뜻모아

공영쇼핑이 10일까지 매일 1000명에
게 꽃다발을 무료로 증정하는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6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
부·농협·공영쇼핑이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풍광수토산동진쌀 △
마이산감치 △사임당 떡 세트 △대저능
협 토마토 △조금자 채소잡곡 방송 시작
시 주문할 수 있고, 소진 시 무료 꽃다발

주문은 종료된다. 방송 시간 동안 상담
원, 자동주문, 온라인 등 전 채널로 ID 당
1개씩만 주문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졸업식, 입학식,
각종 행사 등 꽃 소비가 많은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취소 및 중단되게 됐다. 이
여파로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에 힘을 주
고자 공영쇼핑은 관련 부처 및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화훼농가에는 꽃 판매의 도
움을, 고객에게는 꽃을 선물해 주는 꽃다발
무료 증정을 기획했다.
앞서 공영쇼핑은 지난달 27일 화훼농

가를 돕기 위한 ‘가치삼사다’ 특별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판매한 ‘공기정화
식물·장미꽃다발 세트’는 방송 종료 10
분을 남기고 준비한 2800세트가 모두 판
매돼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길어지는 코로나
19 국면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꽃다
발을 받아보면서 조금이나마 생활의 활
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흡소평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한글과컴퓨터의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케어는 ‘대국민 마스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컴라이프케어
가 24일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
이디어 접수 1건당 마스크 1개를 취약계층
에 기증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

단 ICT 기술을 적용한 기술 부문과 편의
성,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부문으로 나
뉘어 진행된다. 우수작 선정 기준은 독창성
40%와 실현 가능성 40%, 구체성 20%에
따라 심사한다. 개인과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 제
안할 수 있다. 지원자는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자유 형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전의 총상금은 3600만 원이다. 각 부문별
금상 1000만 원, 은상 500만 원, 동상
3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컴라이프케어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
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서 기
존 마스크 제품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
한 환경적 재단에 대응할 수 있는 마스
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 마스크 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p>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용까지 체계적 지원</p>	<p>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p>	<p>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p>	<p>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p>	<p>장애인고용 30년, 함께 하는 도약 1990-2020</p> <p>☎ 1588-1519 www.kead.or.kr</p>
---	---	---	---	--

1000만 '실직 쇼크'... 트럼프 "2조 달러 추가 부양책"

美, 4번째 부양카드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여파로 고용 쇼크에 빠진 미국이 추가 경기 부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상 최대인 2조 달러(약 2471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결정할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용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까닭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분기(4-6월)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8%(연율 환산)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예상이 맞다면 분기 기준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로 기록될 수 있다. 민간 조사기관에서는 이미 두 자리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공공기관도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3일 발표된 3월 고용지표도 충격적이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70만1000개 줄고, 실업률도 전월의 3.5%에서 4.4%로 악화했다. 더 심각한 건, 이번 고용지표는 3월 중순까지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2주 사이만 해도 무려 1000만 명

여야, 이례적 고용악화 위기감 고조 2분기 GDP -28%... 2차대전後 최악 민주당 "추가 부양책 마련 초당적 협력" 트럼프 "인프라 투자로 고용 늘리자"

가량이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반까지 실업률이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경기와 고용이 예상 외로 악화하자 미국 여야 간에 조기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크널 상원 원내대표는 3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초당적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게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다. 3월 결정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서는 중소기업에 3500억 달러의 신용 공여를 마련해 급여 지급을 연방 정부가 대신해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종업원 500명 미만)이 미국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야당에서는 "자금 규모가 부족하다"며 2배 이상인 7000억~1조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금이 부족하면 의회에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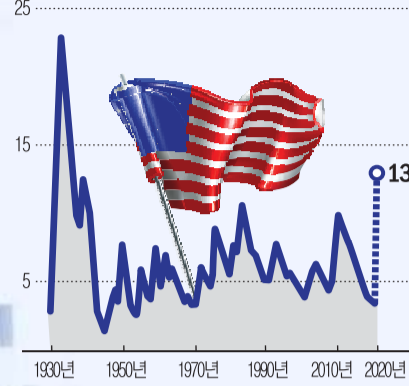
가계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3월 대책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TF' 브리핑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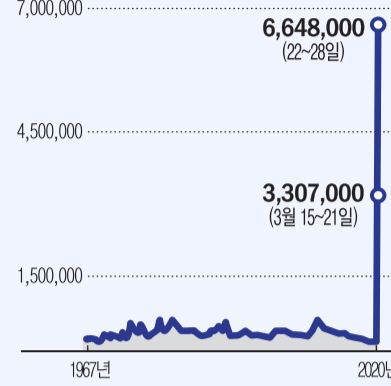
미국 실업률 추이

(단위: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단위: 건)



워싱턴D.C./AP연합뉴스

하고,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아동에게는 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이다. 정리하고 무급 휴가, 급여 삭감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어서 추가 부양책에서는 5월 이후에 두 번째 현금 지급을 단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모기지 지원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3월 경기 부양책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우선시하다 보니 고용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공공 투자

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가운데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음 부양책에는 고속통신망이나 수도 인프라 정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 다음 경기 부양책에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책은 3일 접수 개시 직전까지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집행 속도도 더디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실업률이 가장 악화한 것은 2009년 10월(10%)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 1년의 시간이 있었다. 이번에는 비상 사태를 선언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돼 이번 경기 부양책은 규모뿐만 아니라 집행 속도에서도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경기부양할 돈도, 수출길도 막혀...

신흥국, 69년 만에 첫 '역성장'

올 GDP 1.5% 감소... '침체 쓰나미' 휴양지 태국·수출국 멕시코 등 타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선진국 경제를 휩쓸면서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1년 이후 첫 감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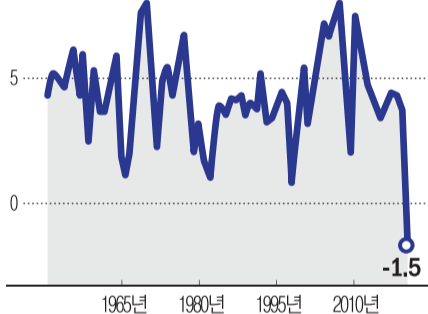
일부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간신히 피한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폐쇄와 예상되는 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폐쇄와 불황 여파는 태국과 같은 휴양지의 관광 산업은 물론,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이나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아보카도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GDP의 3분의 1을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밴코브아메리카(BoA)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인 최대 8%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전망이 정확하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신흥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1980년대 남미 외채 위기,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들 국가는 경제적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신흥국 경제는 석유와 같이 변동성이 강한 상품이나 해외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 관광과 같은 서비스 산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할 여력이 부족한 데다

신흥시장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사회안전망 역시 부실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에는 노동자를 위한 실업보험조차 없는 상태다. 브라질의 저비용 항공사 아줄의 존 로저스 최고경영자(CEO)는 "실업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월 21일 이후 2개월 동안 신흥국 금융시장에서는 무려 820억 달러(약 100조 원)가 유출됐다.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 역시 급락했다. 멕시코 페소, 러시아 루블,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는 최근 몇 주 사이에 미국 달러에 대해 가치가 20% 가까이 떨어졌다. 브라질 헤알화 역시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월스센터의 벤자민 게단 남미 전문가는 "위기 상황에서 신흥시장이 되는 것은 항상 불쾌한 일"이라며 "자본이 필요할 때 그것은 안전한 항구로 날아가며, 수출 실적에 의존할 때에는 수출 상품의 가격과 판매량이 떨어진다. 세수 감소와 함께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은 치솟는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고 싶은
진심으로 꼭 채웠습니다

경제활동기부터 은퇴 후 노후생활까지
사망보장과 생활자금을 균형적으로 보장설계 가능

14대 보장사유 발생시
납입면제

※ (무)14대 보장사유 발생 시 납입면제 혜택이 가입시

생활자금, 사망보장

이러를 함께 하는 여전한 보험 Shinhan생명

野 이어 與 대표까지... 힘 실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해찬 “지역·소득 관계없이 지급”... 4인 가구에 100만원 황교안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 올 예산 재구성해 조달”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에 선거 끝나고 지급안 결정될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 비판해온 야권도 입장을 바꿔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의 기준으로 삼아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소요재정은 9조1000억 원이다. 단 이런 방식을 놓고 곳곳에서 역진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최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감소한 가구는 제외될 소지가 있고 △맞벌이 등 직장가입자가 많은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기준선 경계에 있는 가구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존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온 미래통합당도 입장을 틀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지급기준에 대해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다”라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의 제안은 정부의 안보다 급진적인 안으로, 소요재정만 25조 원이 넘는다. 그는 “(정부안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의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도 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라”라며 “25조 원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부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당이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단 재난지원금 이슈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정은 총선(15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의료진이 환자 구하듯, 긴급자금 속도 중요”

문 대통령, 금융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어려워... 자금 공급 과실 면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금융사 수장들을 만나 자금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100조 원의 긴급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면서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00조 원의 적시적소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융권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한 비상금융 조치가 철차 등에 얽매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긴급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원금 상환 연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 만기가 3년으로 가장 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수요가 몰려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이것이 고용 악화와 가계 소득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경제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과중한 업무로 부담을 느끼는 금융권은 다독이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 위업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금융권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며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정부도 금융권의 애로를 경청하고, 도울 일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확진자 증가세 꺾였지만... 해외 유입·격리 위반 ‘골치’

새 확진자 46일 만에 50명 미만 재확진 증가... 거리두기도 느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퍼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 저점을 찍었던 국민 이동량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검역조사 허위진술과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7명 증가한 1만2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밑돈 건 2월 20일 이후 46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를 50명 미만으로 줄이는 건 안정적인 확진자 관리를 위한 1차 목표치였다.

단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총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해외유입과 시설 내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이날만 해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 대구 달성군 제2 미주병원,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각각 4명, 4명, 1명 추가됐고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격리 해제 후 재확진된 사례가 18건이나 나왔다. 확진자 해외유입도 증가세다. 이날 신규 확진자 47명 중 16명은 해외유입 사례였다. 검역 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9명이 확인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더욱이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증상을 숨긴 채 입국하거나, 자가격리 중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도 속속 적발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역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가격리 위반의는 전날까지 137명이 확인됐다. 63명은 고발·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전자팔찌 부착을 통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 조정관은 “어떤 수단이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정부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로감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느슨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국민 이동량은 1개월 전보다 16.1% 증가했다.

한편, 퇴원 후 재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 해제 후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재확진 사례는 총 50여 건이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격리 해제 후 2주 정도는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결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아직은 그 환자들로 인한 2차 감염 발생 등이 확인되지는 않아서 좀 더 조사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 확산·韓 근로자 절반 출근... 어수선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미타결 와중에 해외 미군 검체검사 韓 의뢰 논란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돌입 등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1일부터 무급휴직이 단행되면서 6일 기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 중 절반 가까운 4000여 명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구와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이달 5일까지 9명이 확진됐다. 캠프 험프리스 상주인구는 장병과 가족 등 3만 명에 달한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는 용산 한미연합사

령부 등 전국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기반 시설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공사 관련 인력 출입이 불가피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평택과 오산기지는 공동 보건보호태세(HPCON)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보다 강화된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돼 있다. 해당 기지 소속 장병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런데도 미군 장병들이 몰래 기지를 빠져나가 출입금지 장소를 드나드는 사실이 적발되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평택기지 밖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코로나19 침투로 기능마비를 우려한 미 8군사령부는 핵심부서 인력의 사무실 근무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5일 중사 1명과 병사 3명이 술집을 출입해 2개월 급여 몰수와 강등조치 등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절반이 무급휴직을 당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출근했다가 들기면 가중 처벌한다”는 위협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들이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일본 등 해외 기지에 근무하는 미군의 검체를 채취해 한국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해외 미군 검체를 한국의 한 연구소에 의뢰했는데 지난달부터 이달 초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미군 72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환 기자 whan@

“국내 6대 제조업 영업이익률, 해외 기업 절반 수준”

한경연 ‘포브스 2000’ 분석

반도체 등 주요 업종 5.4% 그쳐
업종 다양성 부족...신성장 미흡
기업 수 5위인데 시총은 12위
“규제·노동·세제 개혁 나서야”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업종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발표한 ‘2011, 2019년 포브스 글로벌(Forbes Global) 2000대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포브스 2000에 포함된 국내 기업 업종 23개 중 업종별 영업 이익률이 해외 기업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4개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비롯한 대표 제조업 6개 업종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5.4%로 같은 업종 해외 기업 영업이익률(9.4%)의 반도막 수준이었다. 유틸리티(-0.9%), 백화점·할인마트(-0.8%), 항공서비스(-1.5%) 등 업종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종 다양성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포브스 2000에 올라간 57개 업종 중 국내 기업이 포함된 업종은 23개다. 미국(55개), 일본(45개), 중국(43개) 등의 절

반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T·항공우주·의료·헬스케어 등 8대 신성장 업종에서 포브스 2000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 중 국내 기업이 포함된 업종은 3개, 기업 수는 5곳뿐이다.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도 글로벌 기업에 뒤처져 있다.

포브스 2000에 포함된 우리나라 기업 수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데 비해, 시가총액 합계는 12위다. 시가총액 500위 안에 포함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3개뿐이다.

지난해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2724억 달러)의 시가총액은 세계 1위 기업인 애플(9613억 달러)의 28.3% 수준이다. 자동차 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312억 달러)의 시가총액도 글로벌 최대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1766억 달러)의 17.7% 수준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수익성이 낮고 신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배출하지 못해 세계무대에서 뒤처져 있다”며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규제, 노동, 세제의 3대 개혁에 나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인천공항·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1조 투자·2만2000개 일자리 창출

수출·물류 등 50개사 유치 기대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확대로 50개사 기업을 유치해 1조 원의 투자와 2만 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 물류 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하는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근 배후단지 283만㎡다.

인천공항은 2005년 4월 1단계 209만 3000㎡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12월 2단계 92만 2000㎡도 확대 지정됐고 이번에 3단계가 추가됐다.

부산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해 총 1220만㎡ 규모로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됐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10~30%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임대료 감면 액수는 500만 달러 이상은 3년간 50%, 1000만 달러 이상은 5년간 50%다. 또 다국적 기업과 수출·물류 기업을 유치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수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6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설명회장으로 줄 지어 들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8% 증가했다. 뉴스

정부 지원 철도부품 첫 ‘국제인증’

신우이엔지 ‘선로변 제어장치’
獨 인증기관 안전성 등급 ‘최고’
외국산보다 1500만원 저렴

신우이엔지가 정부의 지원으로 자사의 선로변 제어장치(LEU:Line-side Electronic Unit)에 대한 국제인증을 받았다. LEU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외산품 대비 1대당 약 1000만~1500만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우이엔지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철도 신호용품인 LEU가 국제인증기관인 독일 티유브이슈드로부터 최고 등급(4등급)의 안전성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철도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20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업체의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국

제인증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국제인증 취득에 평균 약 4억 원의 비용과 평균 약 3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신우이엔지는 국토부로부터 1억 원(소요비용 총 2억4300만 원 중 41%)의 자금과 종사자 교육을 지원받았다. 국토부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한 첫 성과다.

LEU는 지상 정보전송 장치인 발리스(Balise)와 지상 신호기 사이에 신호정보를 전달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주요 철도 신호용품이다. 이번에 최초 국산 기술이 최고 등급인 4등급을 취득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철도 기술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격차(2018년 기준)는 신호제어 80%, 노반·터널 85%, 궤도·교량 85%, 통신 86%, 전자선 94% 수준이다.

이번 국제인증 취득으로 인해 그간 국내 LEU 시장에서 사용되던 해외 수입품을 저렴한 자국 기술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KB생명보험 나의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	-------------------------------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예액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장기간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밀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고 있는 다음 중 어느 한개의 경우에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며 지급이 불행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장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언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보험의 심의필 제18649호(2019.07.0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의 심의필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소:서울시 명동로 2길 28 KB생명빌딩 www.kblife.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다문화 배려 실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자 4·15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비례정당'이 '꼼수'로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여성·청년·다문화가정 등 정치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는 5일 정치적 약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이주민들을 만나 이번 총선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중국 결혼이주 13년 차인 한 여성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점차 줄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주 여성에 대한 활동 혜택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기존 지원 제도 대상에서 빠진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베트남 결혼이주 10년 차인 다른 여성도 "열네 살 딸아이가 한국어 교육 무료 지원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됐는데 요즘은 다

이주 여성들 "지원 갈수록 줄어든다" 호소... 관련 공약은 미흡
전문가 "위성정당 꼼수 피해, 사회적 약자에게 고스란히 갈 것"
이자스민 "소수자 지역구 후보 할당 같은 정당 차원 배려 필요"

문화가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들 대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다문화 지원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자신들을 대변해 줄 자리가 줄어들 것에 대해 걱정했다. 필리핀 결혼이주 12년 차인 한 여성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다문화가정센터에서 교육받아서 좋았다. 나도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그런데 이번 총선으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다문화가정 아이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비례정당의 이주민 관련 공약은 미흡해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를 살펴보면 비례정당의 공약에 이주민이 언급된 곳은 정의당뿐이었다.

이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자스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소수자들은 지역구 출마가 어려워 정당 차원에서 '준비된 후보'로서의 할당 같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철에 반짝 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당마다 정책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 대상에 '외국인' 제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난은 외국인을 피해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당 차원에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정당의 다양성보다는 정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문화가정 사회적 기업 관계자는 "이주 여성의 현주소는 공장, 식당 등 단순노동에 치중돼 있는데 사실 이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사회 배려계층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모든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

표제가 본래 취지를 어겨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는 소수자 의식을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자기 정당이 한 석이라도 얻고 승리해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위성정당 역시 제도의 빈틈을 노리고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기형적인 제도는 없다"며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중이 절반씩 할당됐어야 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개선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6선 도전' 박병석 vs '4전5기' 이영규

총선 현장 대전 서구갑

대전 서구갑에서 대결하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영규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번이 5번째 만남이다. 지금까지는 박 후보가 번번이 이 후보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했다. 여야 모두 이번에도 박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 총선이 6선 도전이다. 세종시에서 이해찬 의원이 7선을 끝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최다선이다. 박 후보는 이번에 최다선 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의장 경쟁에도 뛰어 들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무게감을 선거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여당 내 영향력이 큰 점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 등 굵직한 공약들을 내놨다.

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전·충남지역에 혁신도



박병석 후보 이영규 후보

朴 "당내 최다선, 국회의장" 포부
李,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 잡기

시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수도권에 있는 좋은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으로 유치해 취업의 문을 확 넓히기 위해서는 여당 중진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국회도서관 분관 대전 유치, 대전과 진주를 잇는 내륙철도 건설 등 굵직한 개발 공약들도 내놨다.

이에 맞서는 '4전 5기' 이 후보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부터 박 후보와 경쟁했지

만 계속 고배를 마셨다. 17대 총선에서 두 후보의 표차는 28.78%포인트였다. 이 격차는 20대 총선이 되면서 8.83%포인트까지 좁혀졌고, 이번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후보의 '큰 인물론'에 맞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 총선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확대와 간이과세기준 현실화,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독점체제 개선, 지역화폐 연간 200억 원 발행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 서구는 도마동과 복수동의 원도심과 가수원동, 관저동 등 신도심이 모두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이 후보는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은 대전 서구갑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경합예세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미니 대선' 종로구 부동산 공약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李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창신동에 첨단 창업단지 유치"

黃 "자하문로에 대형 지하주차장 창신·승인 주민맞춤형 재개발"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결이 다른 부동산 정책공약이 대비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두 후보가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종로에서 맞붙은 만큼, 각 당을 대표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기조에 맞춰 청년층과 노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0대 정책공약 중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주택 공급과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 등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 후보는 종로구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역세권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신동 재개발 구역에 첨단창업단지를 유치하고 공동주거와 일자리가 집적된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재개발 취소 지역의 경우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기반시설(SOC)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복궁 서측과 북촌·가회구역에는 역사문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황학정 일대에는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

다. 또 세검정에 종로구 첫 청소년센터 터를 짓고, 부암동에는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을 복합 건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 후보가 주거지 안정화에 초점을 뒀다면, 황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다. 도시 발전이 교통과 직결돼 있는 만큼, 종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이를 위해 황 후보는 자하문로에 1.2km 규모의 대형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화동 사거리~청계천 도로를 확장하고, 종로 전역에 주민 활용 공용주차장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시장 상인이 많은 종로·창신·승인동 일대는 골목 환경을 개선하고 전용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분당선 연장(강남-경복궁-세검정-고양)과 강북형단 경전철(목동-부암동-삼청동-청량리) 추진은 두 후보가 겹치는 내용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창신·승인지역의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국비 지원을 통해 주민 맞춤형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건축결합제도(대지별로 제각각인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청년, 정치를 말하다 / 이내훈 민생당 비례후보

"청년 문화예술인 배움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고졸 프리랜서 만화가 출신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공약

"저는 고졸의 만화가라서 남들이 겪는 설움을 똑같이 다 겪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청년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청년이 나아져야 우리 사회가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생당의 비례대표 2번 자리는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애초 내정됐으나, 최종적으로 청년 후보인 이내훈(37·사진) 후보에게 배정됐다. 이 후보는 5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도 제가 2번인지 잘 모르겠다.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고 당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게 남은 기간 진짜 열심히 뛰어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만화가 출신인 이 후보는 자신



이 겪은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활동에 뛰어 들었다. 그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받은 일도 있고 법정까지 가서 승소했는데도 결국에는 돈을 못 받은 적도 있다"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면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원내에 진입하면 최우선으로 하고 싶은 일도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원래 목적인 예술인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아직 명성은 없지만 참신한 젊은 친구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맞춤형 표준계약서 의무화, 국가지원 예술인 사업의 분배 다양화를 비롯한 10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그림 그릴 때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 식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 식량에 대해 "당장 급하게 먹을 게 없을 때 신청하면 택배로 에너지바 같은 식품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당의 청년 공약으로는 주거정책으로 20평대 주택을 1억 원대에 공급하는 안, 군대에 있는 동안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역 후 초저금리 융자 제공,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혜 기자 winjh@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텅 비어버린 거리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수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내는 자가격리자와 환자분들

그 동안의 모든 고난도 결국 이겨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모델
휠체어펜싱 김선미 선수

獨, 공장 가동률 80%... ‘연쇄 섯다운’ 막은 ‘선제 방역’

2월 초 중서 코로나 발병하자마자 獨 기업, 사업장에 ‘거리두기’ 지시 고용 유지·경제충격 완화 ‘두 토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의 공장 대부분이 섯다운 상태에 돌입했지만, 독일에선 공장 가동률이 80%에 이르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의 사례가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 비결을 최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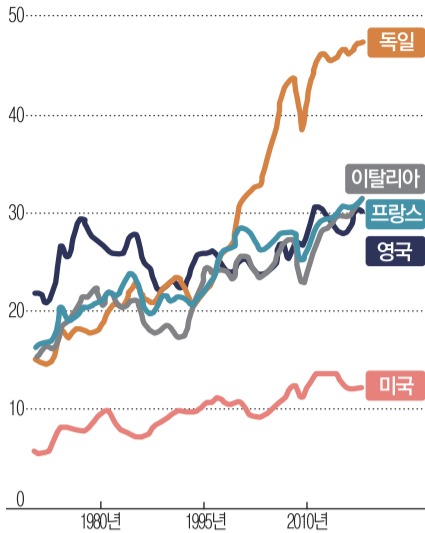
WSJ에 따르면 은행 관계자와 이코노미스트, 업계 발표를 집계한 결과, 독일 제조업체의 가동률은 80%에 이른다. 이들 공장 대부분이 중국에서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발 빠르게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덕분이다.

독일 기업 경영진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그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조기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대책들은 코로나19가 최초로 발발한 중국 사업장에서 처음 시도됐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이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모터와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ebm 팍스트그룹은 코로나19가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인 2월 초에 대책을 도입했다. 스테판 브란틀 최고경영자(CEO)는 출장이나 직원 모임을 제한하고, 관리 부서에는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미국 코네티컷 주와 테네시 주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게는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차 근무를 시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했다. 또 독일에 있는 회사 시설에는 외부 방문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청소 팀이 문 손잡이와 기계 손잡이, 기타 기기를 자주 소독하고 있다. 휴게실 구조도 바꿔 직원이 나란히 줄지어 서지 않도록 했다. 관리 부서 직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한다.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는 사내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지게차 메이커인 키온그룹은 외국의 공급망 혼란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장 5곳과

GDP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약 4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일찌감치 위기 대책반을 설치하고, 건강·안전에 관한 전략을 수립했다. 조치의 일환으로 작업 책상을 없애 직원 사이의 간격도 넓혔다.

유압기 제조업체 HAWE 하이드로리크는 독일 내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에 이른다. HAWE는 직원 간 거리를 최소 1.5m로 하고, 의료 담당자와 관리직이 엄중하게 감시한다.

WSJ은 이런 조치들이 가능한 건 독일의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상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 노동자의 발언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고는 하나, 노조가 일방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만도 아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의 경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자 업무 복귀를 꺼리는 직원도 있었지만, 공장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다고 한다. 독일 자를란트에 있는 보쉬 공장은 현재 직원의 절반가량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노동 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공장들이 조업을 지속하는 건 일 자리를 지키고 부문 전체 폐쇄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각 기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다. WSJ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과 BMW가 독일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건 예외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우리를 강인한 사람들이었다고 기억해주렴” 영국 런던에 사는 네 살 아기가 5일(현지시간) TV에서 흘러나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국민 연설에 집중하고 있다. 남편 필립공과 원자성에 머물고 있는 여왕은 이날 이례적인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이 같은 성공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우울한 국민들을 격려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의료물자 보급 ‘해결사’ 된 3D 프린팅

GE·보잉 등 글로벌 기업, 최첨단 기술 총동원 마스크 제조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의료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최첨단 3D프린터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대형 복합기업과 미국 HP를 비롯한 IT 기업, 스페인 아에니움엔지니어링 같은 3D프린터 전문 기업들이 병원·의료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3D프린터는 설계도 데이터를 기초로, 재료를 층층이 쌓고 자외선을 쬐어 굳이면 원하는 제품이 완성된다. 다양한 재료로 그 어떤 조형도 만들어낼 수 있고, 병원 근처에 있는 작업장으로 디지털 설계도를 전송하면 물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단, 3D프린터로 만든 제품을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엄격하고, 기존의 대량 생산에 비해 생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항공우주 부품을 생산하는 아에니움은 최근 의료용 마스크 필수 부재인 필터 제조에 나섰다. 초경량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폴리머



한 남성이 3D프린터로 만든 안면 보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4층 필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HP가 개발 중인 3D프린터로 인쇄한 마스크에 접목하거나 기존 인공호흡기에 사용할 수 있다.

HP는 미국과 스페인의 3D프린터 공장을 활용해 마스크 조절기구와 안면 보호구(face shields) 등 의료용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멘스는 자동차 제조업체 등 3D프린터 고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료기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사가 가진 100대 이상의 3D프린터를 미국과 유럽에서 가동시

기고 있다.

GE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마스크를 3D프린터로 찍어내고 있다.

업체들은 의료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매일 회의를 하고, 제품 설계와 시험에 대해 의료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와 긴밀하게 협의한다. 이스라엘과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대형 3D프린터 업체 스트라타시스 미주 부문의 스콧 드리카키스 의료 책임자는 “경쟁업체 사이에 이렇게 밀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아에니움은 의료용 고기능 마스크 ‘N95’의 기준을 충족한 필터 제조에서 HP, 3D프린터의 선구자인 독일 EOS와 협력하고 있다. 아에니움은 무료로 필터와 설계도를 제공해 다른 3D프린터 기업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키트 퍼커 교수는 3D프린터 업체인 데스크메탈과 손잡고 3D프린터로 인쇄 가능한 비강 면봉을 개발했다. 면이 아닌 모발 모양의 플라스틱 구조를 채용한 이 면봉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설계도 승인을 받고 생산을 시작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마스크·체온체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유통업체 ‘방역 혼란’ 키운 美 정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거침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유통업체들이 불안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안전지침 없이 업체들이 중구난방 식 대응에 나서면서 오히려 공중보건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수백만 명의 직원 안전과 관련해 각자도생하고 있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직원 출근 시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며, 원하는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제공하고 있다. 타깃도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체온은 따로 측정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체온계를 제공해 자가 측정을 요청한 반면, 라이벌 업체인 로우스는 정 반대 방침을 시행 중이다. 원하는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대신 체온계를 나눠주거나 측정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다이소’라 불리는 달러제너럴과 달러트리브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조치가 아예 없다.

미국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전미소매업협회(NRF)는 “정부 지침과 권고를 따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CNN은 유통업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방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체들이 주먹구구 식으로 자체 방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업계의 근로자 보호 노력을 저해하고 결국 공중 보건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전히 수많은 미국인이 매일 매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레너드 마르쿠스 하버드공중보건대학 공동 책임자는 “연방 정부의 일관된 지침 없이 각 주, 도시 및 사업체가 각자도생하고 있다”면서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일관성은 허점을 막고 확산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아베, 오늘 ‘긴급사태’ 선포

수도권 대상... 불요불급 상황 제외하고 외출금지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7일 긴급사태를 선포할 의향을 굳히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등에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6일 오후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등과 회담하고, 7일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신문은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광역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를 비롯해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의 휴교나 백화점,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의료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긴급 시 배송업체에 의약품과 의료장비 수송 요청과 지시도 가능해진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



아베 일본 총리가 3일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 쓰고 있던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긴급사태 선언 후의 대응에 대해 불요불급(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음)한 외출의 자제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대중교통이나 식품점의 영업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유지할 방침이다. 기업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산은에 손 벌린 쌍용차... 고강도 자구안이 '생존 열쇠'

‘독자 경영’을 선고받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강도 높은 실효성 및 이행 가능성이 포함된 자구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사실상 쌍용차에 대해 자금 지원 압박이 없는 산은으로서는 ‘고강도’ 계획이 아니고서선 심불리 대출기한 연장이나 추가자금 지원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로부터 자구계획안을 제출받은 후에 대출 연장 및 자금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쌍용차는 오는 7월까지 산은에 빌린 700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추가로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2300억 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긴급 자금도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마힌드라 사장은 지난 1월 2022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입해 쌍용차를 흑자 전환하겠다고 정부와 산은에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마힌드라 사장은 23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대신 1000억 원은 쌍용차가 부담하고 나머지 1700억 원은 사실상 구조조정 전문가인 산은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마힌드라 측은 이사회를 열어 2300억 원의 지원을 없던 일로 결정하

**자금 지원 압박 없는 산은
보유 주식 없고 대출금이 전부 만기 연장·추가자금 수혈 희망**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이 관건
산은 “지원안 결정된 것 없어 공식 계획 가져오면 지원 논의”**

면서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현재로서는 쌍용차가 대출 연장을 비롯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쌍용차뿐 아니라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 전반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전부 산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대기업 자금 지원에 대해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원칙론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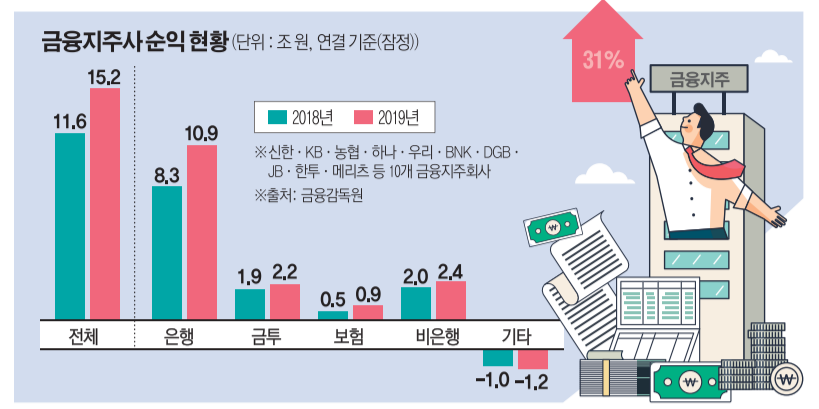
특히 산은으로서도 긴급하게 쌍용차를 지원할 요인이 적다. 당시 마힌드라가 이동결 산은 회장과 직접 만나, 자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산은은 이와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전혀 없

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쌍용차는 한국GM처럼 산은이 주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출금을 지원한 게 전부이기 때문에 추가자금 지원에 대한 압박이 없었다. 마힌드라가 자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산은에 요구했던 1700억 원도 그저 ‘요청’에 불과한 실체 없는 숫자였던 셈이다.

따라서 쌍용차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을 앞서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지원하면서 산은이 언급했던 “이해관계자의 고동 부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쌍용차가 산은에 제출한 ‘자구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날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공식적으로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상황이라, 산은이 냉정하게 자금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은 적다. 산은 역시 ‘계획안’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산은 관계자는 “쌍용차 지원에 대해선 당장 발표할 내용은 없다”라면서도 “향후 쌍용차가 공식적으로 계획안을 내면 그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금융지주, 순이익 15.2兆 전년보다 31% 늘었다

2019 경영실적 발표

**은행 순이익 2.6조 '최다 증가'
총자산 2629조로 27% 늘어
부채율 3.18%p 하락 29.4%**

주사 자산비중의 4분의 3은 은행권이 차지했고 금융투자(9.7%), 보험(8.4%), 여전사(5.5%)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지주사의 총자본비율은 13.54%로 전년보다 0.8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자본과 보통주 자본비율 역시 각각 12.1%와 11.1%로 0.9%p, 1.19%p 떨어졌다. 현행 규제비용 상 금융지주사의 총 자본비율은 11%, 기본자본비율은 9.5%, 보통주 자본비율은 8.0%를 웃돌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위험기중자산 증가율이 총자본증가율과 보통주자본증가율을 상회해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규제비용은 크게 웃돌고 있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10개 금융지주회사(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조2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범한 우리금융을 제외하면 지주사 순이익 증가율은 14.8%(13조3616억 원) 수준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2조6153억 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부문은 주가지수연계펀드 등 펀드관련순이익 증가로 22.6%(5676억 원) 늘었고, 보험 역시 신한금융의 오랜저라이프 자회사 편입 등으로 96.2%(4923억 원) 확대됐다. 전체 순이익 가운데는 은행권(64.3%), 금융투자(17.2%), 여전사(11%), 보험(5.6%)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역시 증가했다. 2019년 말 현재 금융지주사 총 자산은 2629조원으로 27%가량 늘었다. 자회사 가운데서는 은행 자산 증가폭(30%, 457조원)이 가장 높았고, 여전사(22.8%, 27조원), 보험사(21.9%, 40조원), 금융투자(12.1%, 2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

서지연 기자 sij@

신한銀 ‘퇴직 뱅커’ 23인, 고객 불만 해결사로 귀환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 도입
금융사기 예방 등 업무 수행**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의 주요 업무로는 △ 고객 관점에서의 상품 판매 프로세스 적정성 점검 △만기도래예금, 타발송금 등의 지급 지연 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 등이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활동 영역을 탄력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이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도입한다. 취임 초부터 고객 중심을 강조하는 진 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신한은행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신한은행 각 지역본부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영업점에서 발생한 고객의 불만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신규인력 23명을 별도 채용했다. 신규 채용된 23명은 오랜 근무 경력을 가진 신한은행의 부서장급 퇴직직원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전국 22개 지역 영업본부 및 1개 PWM본부에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로 배치됐다. 회사 측은 풍부한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

현장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 올해 초 소비자보호본부를 소비자보호그룹을 재편해 소비자보호 역할을 강화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AI 시스템을 활용한 상품 판매프로세스 점검도 추진 중에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조직이 신한은행의 고객중심 문화를 확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객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금융권 ‘주 52시간 초과근무’ 허용... 코로나 피해 지원 가속

금융당국, 노사정 공동선언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



은성수(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 문성현(첫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박홍배(두 번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영(네 번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 윤석현(다섯 번째)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다 보면 사전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넘어서 수 있기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넘어서 수 있기에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혹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당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수은, 4000억 규모 ‘바이오헬스-K 펀드’ 조성

한국수출입은행은 보건의료·제약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 운용사 모집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수은은 1000억 원 이내의 출자를 검토 중이며 최종적인 펀드 규모는 총 40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펀드는 면역·유전자치료, 의료시스템, 진단키트·의약, 첨단 의료기기 등 바이오 기업의 수출촉진, 해외투자, 해외사업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출자액 중 250억 원은 벤처기업에 특화된 별도 펀드(1000억 원 규모)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방문규 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단기술·의료시스템·ICT 기반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이 유망한 K-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K 펀드 조성사업은 수은 홈페이지에 공고됐으며,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수은은 올해 보건의료·제약산업 뿐 아니라 IT산업, 해외 인프라, 조선해양 분야 등에 총 5750억 원의 직·간접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삼성 공채 스타트... '언택트' 방식으로 5000명 뽑는다

전자·금융 등 3개 소그룹별 진행 '비대면' GSAT·면접 검토 채용 설명회도 온라인 대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채 일정을 한 달 가까이 미뤘던 삼성이 6일 공고를 내고 신입 채용에 돌입했다.

이번 주부터는 계열사별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직무적성검사(GSAT)와 면접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언택트(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들은 이날 삼성 커리어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해와 같이 전자, 금융, 비(非)전자 제조 등 3개 소그룹별로 진행될 예정인 올 상반기 신입 공채에서는 직무 적합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5000명 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는 이날부터 '2020년 상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원서 접수 마감일은 13일 오후 5시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직무적합성평가(서류평가)-삼성직무적성검사(GSAT)와 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직무적성검사는 국

내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과 해외 2개 지역(미국 뉴저지·LA)에서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할 예정이다. GSAT는 시험 과목은 언어능력(30문항·25분), 수리능력(20문항·30분), 추리능력(30문항·30분), 시각적 사고(30문항·30분)로 구성된다.

면접은 임원면접(30분), 직무역량면접(30분), 창의성면접(30분)의 3가지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중 창의성면접은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면접위원과 문답을 주고받는 시험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GSAT와 면접을 어떤 형태로 치를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온라인 등

평가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 등은 7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채용에 앞서 삼성은 주요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채용 설명회를 올리는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채용의 일환이다.

먼저 삼성SDI는 오는 8~10일 3일간 '랜선 리쿠르팅'을 연다. 지난달 27~4월 2일까지 상담신청을 받았으며, 취업 준비생들은 인사 담당자와의 채팅을 통해 삼성SDI

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 DS사업부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채용 설명회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파운드리 사업부와 시스템LSI 사업부로 나눠 각 업무와 복리후생 등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삼성 바이오 계열사들도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잇달아 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9일 오후 6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회사 및 채용절차 등을 소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전 11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삼성엔지니어링도 2020 상반기 신입사원 및 인턴모집 공고를 내고 온라인 채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 TV 박스로 가구 만들어 보세요” 삼성전자가 TV 포장재를 활용해 소비자가 소형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포장재 디자인을 전면 변경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출고되는 라이프스타일 TV(더 프레임·더 세리프·더 세로) 포장 박스의 각 면에 도트(Dot) 디자인을 적용,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손쉽게 잘라내 조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QR코드를 통해 반려 동물용 물품, 소형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메뉴얼도 제공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中서 굴착기 32대 수주

대형 건설업체 “추가 구매” 의사 지난달부터 전년 수준 시장 회복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건설기계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현지에서 중형 굴착기를 대규모 수주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에 위치한 대형 인프라건설 업체 2곳에서 22등급 중형 굴착기 32대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장비들은 장춘시 지하철, 고속도로, 교량 등 인프라 건설 현장에 쓰일 예정이다.

염운성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영업 총괄 전무는 “이번에 수주한 고객들은 10대 이상 추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며 “뛰어난 제품력과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린성 지역에서는 최근 3~4년간 10%대 시

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누계 점유율은 13%에 육박했다.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됐던 중국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0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에 역대 최저치인 35.7을 기록한 직후 크게 반등한 수치다. 제조업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 굴착기 시장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2월까지만해도 누계 판매 1만 4000여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규모로 줄었으나, 3월 한 달 간 4만 대를 웃돌며 전년 수준을 회복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연초 두 달여 간 추축했던 중국 시장 수요가 정상화되는 추세”라며 “업계에서는 시장 성수기가 4~5월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제네시스 신형 G80, BMW의 맞수” 외신 극찬

카엔드라이버·모터트렌드 등 “감동” “신선” “압도적” 평가

해외의 주요 자동차 매체가 제네시스 신형 G80의 디자인과 엔진 등 다방면을 호평했다.

6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 '카엔드라이버(Car and Driver)'는 “우리는 새로운 G80에 감동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G80에 적용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 디자인 언어는 독특하고 우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GV80에 선보인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램프를 예로 들며 새로운 제네시스 디자인 정체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1(Motor1)'도 G80에 대해 “GV80을 통해 먼저 선

보인 독창적인 외관을 세단 형태에 맞게 잘 해석해 적용했다”며 “이런 디자인은 독일차가 장악한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외신은 G80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 디자인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모터트렌드(Motor trend)'는 “새로운 럭셔리 세단을 만나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테리어 품질은 어떤 경쟁 모델에도 뒤지지 않는다. 비상등과 시동 버튼이 대시보드 우드 트림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보라”고 언급했다.

카엔드라이버도 “새로운 G80은 존재감이 넘치며, 진정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며 “가죽, 오픈 포어 우드, 대시보드 금속 장식 등의 품질이 좋아 보이고, 특히 대시보드 디자인이 압도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모터1 역시 “G80은 나무, 가죽, 알루미늄 등 여러 최고급 소재를 동원해 만

들었다”고 언급했다. '로드앤트랙(Road&Track)'은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과 고급 소재로 인테리어를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와 함께 3세대 G80의 인테리어 디자인 테마인 ‘여백의 미’가 의도하는 바를 독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G80은 3세대 신형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공차 중량을 125kg 줄였고 연비와 동력 성능도 개선했다. 외신은 이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했다.

로드앤트랙은 “신형 G80은 BMW 5시리즈의 강력한 맞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로운 후륜구동 플랫폼과 최고출력 375마력인 3.5 터보 엔진은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며 “매우 흥미롭다”는 말을 덧붙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오뎅 효율’ 가전 사면 10% 환급 LG전자, 최대 80만원 추가 혜택

LG전자는 오뎅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10% 환급 외에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말부터 올 연말까지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10개 품목의 오뎅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

LG전자는 정부 환급금과 별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LG전자 베스트샵이나 백화점 내 LG전자 매장에서 6월 30일까지 오뎅효율 환급 대상 가전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뎅에 혜택을 더하다!’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모델 구매 고객이 LG전자 멤버십 앱의 이벤트에 응모하면 참여고객 중 2020명을 추첨해 트롬 스타일러 플러스, 프라엘 더마 LED 넥케어,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베스트샵 매장모형 블록, 아메리칸노 쿠폰 등을 증정한다.

또 제품별로 1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캐시백과 모바일 상품권 등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환급 대상 트롬 세탁기 21kg 제품을 미니워시, 스타일러, 14kg 이상 건조기 등 다른 의류관리가전과 동시에 구입하는 고객은 환급금 외에 최대 80만 원의 추가 캐시백을 받는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금호석화, 33년째 무분규 임금 합의

3개 노조, 사측에 조정 위임

금호석유화학은 3개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 협상 관련 사항을 위임하면서 2020년 임금협상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금호석유화학은 1사 3노조에도 33년간 분규 없이 임금 합의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위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지정되는 등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확산하며 전 산업계에 닥친 어려움을 금호석유화학 노사가 함께 극복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위임장 전달식에서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발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조가 한 목

소리로 사측에 임금조정 권한을 위임해 주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사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 노조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의료용 라텍스 장갑 200만 장을 대구와 경북 지역 외 의료용 물품이 필요한 곳에 기증했다. 기증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금호석유화학 협력 업체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김유진 기자 eugene@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 희망, 우리가 선물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중소기업 취업청년 가구의 전세안심대출보증은 최대100%) / 단, 일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최대70%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신혼가구	2재녀 이상가구	일반가구
최대 1억원 연 1.2% 금리	최대 2억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1% 금리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4% 금리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9% 금리

2020 새봄맞이 버팀목전세대출

경품 EVENT

이벤트 기간 : 2020.03.02(월) ~ 05.29(금)

- 참여방법 : 기간 중 버팀목전세대출 실행고객 (자동응모)
- 경품 : 삼성TV 65인치 (1명) / 삼성 에어드레서 (3명) / 애플워치5 (5명) / 휴스툼 무선 물걸레청소기 (11명)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000명)
- 당첨자발표 : 6월 중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

▶ 상기내용은 2020. 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정책, 기금 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중 대출받고 2020년 5월 29일까지 대출계좌 유지 고객에 한하며 마케팅 미동의 및 SMS 수신 거절시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은 우리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자택주소지 및 휴대폰 번호로 배송되며, 연락처 정보 오류 등으로 반송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등록된 고객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당첨 고객에 한해 고객정보가 업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경품 발송 이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99-0800, 1599-5000, 1588-5000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압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03.13 준법감시인-0599 심의필 (유효기간 : 2021.3.31)

車업계, 감염 걱정·가계 부담 없도록 '투트랙 안심 마케팅'

현대기아차, 할부금 납입 유예
쌍용차, 300개 전시장 매일 소득
푸조, 시승차 '안심 마중' 서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판매 급감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안심 마케팅'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정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낮추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책임 프로그램'까지 선보였다. 감염 증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 불안을 모두 누그러뜨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 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로 급작스러운 경제적 변화를 겪는 고객을 위해 할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현대차는 '현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구매 후 할부금을 갚을 수 없게 된 고객이 차를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남은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차도 신차 구매 후 첫 1년 동안은 납부금을 면제하는 '희망플랜 365 프리(FREE)'를 선보였다. 모닝과 레이, K3

등을 이달 출고한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총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첫 12개월은 납부금 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나머지 36개월간 연 3.9%의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현대·기아차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안심 프로그램을 미국과 중국으로도 확대해 관심을 모았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신차 구매 고객이 직장을 잃으면 6개월간 할부금을 면제하는 서비스를, 기아차는 중국에서 실적과 전염병으로 할부금 납부가 어려워진 고객을 위해 6개월간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비대면과 정결제에 신경 쓰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낮추는 서비스는 다수 업체의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쌍용차는 전국 300여 개 전시장에 매일 방역 소독하고 방문한 고객의 차에도 항균 연막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도 전국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수시로 방역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푸조와 시트로엥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불모터스는 아예 전시장을 사전 예약제로 바꿨다. 시간 단위로 한 번에 1팀의 고객만

전시장을 방문하도록 조치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놓은 곳도 많다. 금호타이어는 전문 수리기사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의 차를 수령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배달하는 '교체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도 유사한 형태의 '넥스트레벨 GO'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푸조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면 영업사원을 통해 시승 차를 보내주는 '푸조 안심 마중' 서비스까지 내놓았다.

신차를 출시한 업체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 시 가격 할인 혜택을 주며 판매 확대를 꾀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신차 XM3 사전계약을 시작하며 온라인 전용 계약 혜택을 마련했다. 네이버 페이로 청약금 10만 원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했는데, 전체 사전계약의 24%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지프는 온라인으로 차를 계약하고 출고하면 최대 1490만 원을 할인하는 혜택까지 선보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안심 마케팅'을 마련하고 있다. 1 쌍용차는 전국 전시장에 매일 소독해 내방 고객의 감염 우려를 덜고 있다. 2 기아차는 초기 1년 간 납부금을 면제하는 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3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방문 교체대행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제공 각사

붉은 대게살과 소스의 황금비율 몬스터크랩 바디



진~한 대게딱지장에 비벼! 비벼!

매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비벼!

한성기업 HANSUNG ENTERPRISE

"크래미"와 "Crami", "몬스터크랩"과 "Monster Crab"은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9. HANSUNG Enterprise

"생산성 제고·현금성 자산 확보·투자 확대" 신학철 부회장, 3대 생존방안 제시 (LG화학)

"버티는 힘이 경쟁력" CEO 메시지



한다"며 "늘 강조했듯 올해 우리가 당장 활용 가능한 도구는 효율성(Efficiency)이다. 실패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과 구매 효율은 높이자"고

주문했다.

신학철(사진) LG화학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뉴 앵노멀(New abnormal)'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다. 신 부회장은 6일 '생존을 걱정할 것인가, 기회를 노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4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부회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를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라고 하지만 미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이제 예측조차 불가한 초불확실성(hyper uncertainty)의 '뉴 앵노멀(New abnormal)'의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고 우려했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의 생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선택지는 단순하다"며 "외부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내부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 가거나 두 가지뿐"이라고 운을 뚫었다. 이어 "할 수 있는 것을 관리해야

현금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보험이자 신기술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발판이 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비상경영체제(contingency plan)를 재검토하자"고 말했다.

투자 관련해서는 신 부회장은 "살다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싶은 유혹과 꿈이 담긴 적금 통장을 깨야 하는 이유가 수없이 생겨난다"며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으로 미래를 담보잡기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부회장은 "버티는 힘이 경쟁력"이라며 "노력하고 인내하지는 말아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뎌야 할 때는 있다"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국타이어, 고성능 '벤투스 S1 에보3 SUV' 출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고성능 SUV용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SUV (Ventus S1 evo3 SUV)'를 6일 국내에 출시했다.

'벤투스 S1 에보3 SUV'는 포르쉐, BMW,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의 주력 SUV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된 '벤투스 S1 에보 SUV' 시리즈의 최신 모델로 핸들링과 접지력, 정숙성, 승차감, 젖은 노면 제동력 등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바깥쪽 그루브(타이어 표면의 굽은 홈)를 톱니가 맞물린 듯한 '인터락킹'

구조로 디자인해 빗길 수막현상을 예방하고 젖은 노면에서의 접지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타이어 안쪽과 바깥쪽의 패턴 간격을 달리한 '인 아웃 듀얼 피치' 디자인으로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은 높이고 소음은 줄였다. 트레드(타이어의 접착면)에는 신소재인 '고순도 합성 실리카 컴파운드(HSSC)'를 사용해 마일리지를 향상시켰고,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하도록 솔더부 폭을 넓히는 동시에 강성도 강화했다. 사이드월(타이어의 옆면)에는 레이온 카카스(타이어 골격)를 적용해 강성을 높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방사선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도약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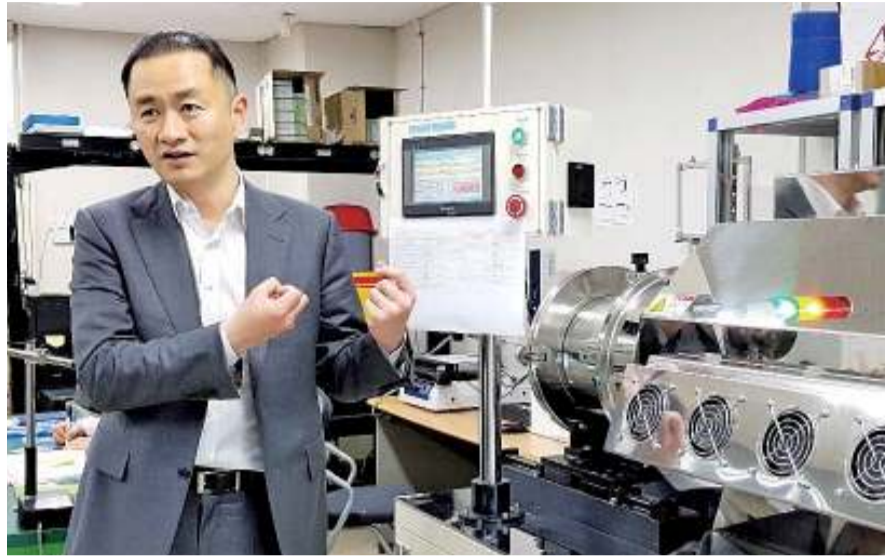
인터뷰

구자돈 '레메디' 대표

‘초소형 X선 튜브’ ‘암 치료 선형가속기’ 등 국산화 주도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 ‘폐렴 신속진단 플랫폼’ 납품
“글로벌 3대 방사선 치료기업 목표... 내년 코스닥 상장”

“방사선 분야,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의료용 방사선 기기 개발 전문기업 ‘레메디’의 구자돈 대표가 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레메디의 핵심 경쟁력은 초소형 X선 튜브다. X선 튜브는 X선을 직접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이다. X선 튜브 분야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X선 튜브 시장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95% 이상이다. 레메디는 자체 플랫폼 기술인 고집속 X선 발생 기술 (HIFoX Technology)을 활용, 경쟁사 대비 10분의 1 수준 크기와 무게 경량화에 성공했다.
구 대표는 “높은 대일 의존도에 의존하던 X선 튜브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

다”고 자신했다.
레메디의 두번째 사업은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 암 치료기기 사업이다. 선형가속기는 고출력 전자기파 에너지로 전자빔을 직선 방향으로 가속해 고에너지 전자빔을 발생시키고, 발생한 전자빔을 주로 텅스텐으로 된 타겟에 충돌시켜 암 치료용 고에너지 X선을 만드는 장치다. 지난해 레메디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창작개발센터 부근에 대지 6611㎡(약 2000평)을 매입했다. 정부 과제 선정 후 선형가속기 개발용 병커를 건축할 예정이다. 정부과제를 통해 방사선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후 시장을 선도, 세계 3대 방사선 치료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구 대표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방사선 암 치료가 50%대를 넘는 반면 국내는



구자돈 레메디 대표가 X선 튜브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선 암 치료기 시장을 구조적으로 바꿔 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과제를 통해 방사선암 치료기기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IAEA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X선 튜브와 방사선암치료기기 외 레메

디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방사선 진단사업이다. 치과진단용 휴대용 소형 포터블 엑스레이(X-Ray) 장비인데 전세계적으로 1000여대를 판매하며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이 엑스레이 장치는 휴대가 가능한 소형 장비로 별도의 차폐시설 대신 이동식 차폐막 설치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는 저선량 X선 진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현장에도 이 제품을 납품했다.
구 대표는 “현재 강원도 내 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자사 ‘폐렴신속진단 엑스레이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문병원에서의 도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폐렴신속진단 엑스레이 플랫폼’은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와 엑스레이 촬영 정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디텍터, 그리고 폐렴 진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융합한 것이다.
구 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구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전세계적 전염병 위협인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대한 민국의 한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폐렴 신속진단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메디는 내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 계약도 체결했다. 최영희 기자 che@

벤처투자 받은 기업, 5년간 4만8000개 일자리 창출

(3339곳)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전년 대비 4만800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초기인 기업과 클라우드·게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났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리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3339개 기업 고용 인원이 지난해 말 기준 12만 8815명으로 투자 직전 연도말(8만790명) 대비 4만8025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비중은 59.4% 규모다.
또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14.4명 늘어난 38.6명으로 집계됐다. VC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총 11조3956억 원

기업당 고용 인원 14.4명 늘어
투자금 10억당 4.2명 신규 고용
창업 초기, 게임·ICT 분야 두각
으로 투자금 10억 원 당 4.2명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분석 당시 투자금 10억 원 당 일자리가 3.8개 창출됐다면, 지난해 4.0개, 올해 4.2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기업 한 곳당 일자리 창출도 2018년 10.6개에서 올해 14.4개로 훌쩍 뛰었다. 지난 2015년에 벤처투자를 받은 718개 기업의 연차별 일자리 추이를 보면 투자 첫 해에 기업당 고용인원이 29.5명에서 38.5명으로 3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4

년 동안 연평균 9%씩 꾸준히 늘어나 5년차인 지난해 54.4명으로 훌쩍 뛰었다. 업력별로 보면 업력 3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이 투자금 10억 원당 5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벤처투자가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투자가 지속돼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력이 3~7년에 해당하는 기업 813개의 경우 10억 원당 일자리가 4.0개 창출됐다. 이어 창업한 지 7년이 넘는 기업은 10억 원당 일자리를 3.3개만 들어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중에서는 클라우드·지능형반도체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했다. 클라우드 분야 기업의 경우 투자금 10억 원당 일자리를 8.7개, 지능형반도

체 기업은 8.6개를 각각 창출했다. 이어 블록체인(7.6개), 공유경제(5.5개), 자율주행(5.3개) 순이다.
아울러 게임 분야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5.8개, ICT 서비스 업종에서 5.3개, 영상·공연·음반에서 5.2개를 각각 만들어내 서비스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벤처투자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며 질적인 성과도 함께 보였다”며 “올해 모태펀드 1조3000억 원을 투자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8월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및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다원 기자 leedw@



교원그룹, 3~7세 유아 대상 사고력 전집 '똑똑 생각단추' 다양한 놀이로 독서 흥미 유발

교원그룹이 3세부터 7세 유아들이 책을 읽고 놀이 활동을 하면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유아 대상 사고력 전집 ‘똑똑 생각단추’를 6일 출시했다.
‘똑똑 생각단추’는 ‘유아 사고력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기억력,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평가력, 창조력 등 6개 영역으로 카테고리별 구성한 뒤 원인과 결과, 추론, 변별 등 핵심 사고 기능을 30개로 세분화해 각 동화에 담아냈다.
특히 각 기능들을 유아의 생활 속 경험과 연계한 내용으로 담아내 유아의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반복’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편식을 하던 주인공이 달걀을 반복해서 먹으며 달걀 요리에 익숙해지는 내용을 담은 형식이다.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기에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책을 읽으면서 ‘놀이감 상자’에 포함된 색깔 돌보기, 모양 자, 실 꿰기 세트를 활용하며 동화 속 내용과 연계된 놀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아이가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색깔 돌보기를 가지고 집 마당 그림을 관찰하며 숨어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거나, 모양 자를 활용해 바람의 경로를 그려볼 수 있다. 또한 오리고, 접고, 만들어보면서 사고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권말 활동이 포함돼 있다.
학부모들을 위한 ‘유아 일상 놀이 가이드’가 제공된다. 각 도서와 연계된 다양한 홈스쿨링 콘텐츠로, 학부모가 유아의 일상 생활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사고력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사고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가 놀이 활동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책은 물론, 음원으로도 들을 수 있다. 이재훈 기자 yes@

“AI로 제2코로나 위기 막자” KT,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손잡고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공모전 ‘포스트코로나 AI 챌린지’를 6일부터 개최한다.
포스트코로나 AI 챌린지는 AI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유입예측알고리즘 모델링’, ‘앱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총 2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유입예측 알고리즘 모델링’ 분야는 해외의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도를 산출해 모델링 하는 것으로 국가별 혹은 일자별 유입되는 확진자 수를 예측해야 한다. KT는 지원자들에게 모델링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질병 관련 뉴스테이터와 가입자 로밍 통계 데이터를 제공한다. ‘앱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는 AI를 활용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김우람 기자 hura@

현대렌탈케어, 1분기 매출 280억... 52% 증가

“중·대형 공기청정기 등 B2B 시장 공략 성과”

현대렌탈케어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2% 늘었다고 밝혔다.
6일 현대렌탈케어는 올 1분기(1~3월) 매출액이 2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렌탈 상품 판매 대수도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5% 늘어난 4만개를 기록했다.
현대렌탈케어는 B2B 부문의 괄목할만한 성장세와 ‘엔택트 문화’ 확산이 올 1분기 매출 및 상품 판매 대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현대렌탈케어의 1분기 B2B 예상 매출액은 3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세 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월엔 수도권에 한 공공기관에 중·대형 공기청정기 3000여 대를 납품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가성비 전략과 B2B 제품 라인업 확대 확충 노력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법인)들의 상황에서, 이들의 수요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렌탈케어 관계자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렌탈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지난해부터 대용량 공기청정기·제빙기 등 B2B 전용 렌탈 제품을 출시하는 등 B2B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대렌탈케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생수를 사서 마시던 소비자들이 정수기 신규 가입을 하는가 하면, 각 방에 추가로 설치할 공기청정기와 의류 청정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렌탈케어의 1분기 정수기 신규 가입계정은 2만2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늘었고, 공기청정기 한 대 가격에 두 대를 이용할 수 있는 ‘1+1 패키지’ 가입 고객도 52% 증가했다. 올 1분기 B2C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43% 증가했다.



현대렌탈케어는 2분기 B2B 부문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현대렌탈케어는 B2B 부문 강화를 위해 지난 연말 영업인력을 20% 확대했다.
현대렌탈케어는 신규 가입 계정을 확대를 위해 제품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얼음 정수기,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등의 신규 렌탈 상품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이사·혼수 시점에 맞춰 렌탈 가격을 낮춘 패키지 상품(냉장고·에어컨·건조기·의류청정기 등 구성)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더 핫한 '편의점 커피전쟁'

이마트24 '민생 ROASTED' 상표권 출원 마치고 라인업 강화 채비
CU, 상반기 머신 업그레이드... GS25, 예가체프·스타벅스 캡슐 확대

이마트24가 커피 라인업 확대에 나서며 여름 성수기를 겨냥한 편의점 커피대전에 막이 올랐다.

커피 시장은 대표적인 레드 오션으로 꼽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커피 전문점 폐업률은 14.1%를 기록해 치킨집 폐업률(10%)을 눌렀다. 실제로 커피 프랜차이즈는 2018년 한 해에만 1만4000곳이 문을 열었지만, 9000여 곳이 폐업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편의점 커피는 블루오션이다. 2018년 국내 커피류 소매채널별 시장 규모는 편의점(40.8%)이 대형할인점(22.9%), 체인슈퍼(14.4%), 독립슈퍼(13.1%), 일반식품점(8.8%)을 밀어내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마트24는 지난달 초 새 커피 브랜드 '민생 ROASTED'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특허 제30분류로 이는 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이마트24가 PB(자체 브랜드)상품인 '민생 시리즈'로 새로운 커피 제품을 론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마트24 측은 "상표 선점 차원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마트24는 현재 2가지 원두 커피 라인업을 운영 중이다. 이프레소와 바리스타다. 이프레소는 커피 머신에 고객이 직접 작동시켜 먹는 형태이며, 바리스타는 종원이나 바리스타가 직접 만들어 내놓는 방식으로 이프레소보다 고급 원두를 사용한 프리미엄 커피다. 지난해 말 이마트24의 전체 점포는 4488개로 이 중 바리스타 매장 220여 점, 이프레소는 3000여 점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펠트형 커피인 '민생'



-커피(아메리카노) '민생단-커피(카페라테)'를 내놨다. 500ml 상품 대비 최대 50% 저렴한 120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커피 중 가장 저렴하다. 올 들어 1~2월에는 즉석커피를 포함한 냉장커피, 캔커피 등을 대상으로 한 달간 2+1, 1+1 등 행사를 진행하고, SSG페이로 결제 시 500원을페이백해주는 이벤트도 펼치는 등 강력한 마케팅에 나섰다.

이마트24의 2018년 커피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42%에 이어 지난해에는 55%로 더 큰 폭으로 뛰었다. 매출 비중 역시 2017년 4.6%에서 작년에는 5.2%로 집계됐다. 원두커피(64%)와 냉장커피(44%), 파우치커피(41%) 등 모든 장르가 올랐다. 올 들어 3월까지 매출 성장률은 49.1%로 집계됐다. 편의점에서는 성장세가 탄탄한

매력적인 시장인 셈이다.

지난해 라이벌 CU를 누르고 점포당 매출 1위에 등극한 GS25는 선두 비결에 대해 커피 브랜드인 '카페25'의 성공적인 안착을 주요인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대당 1300만 원이 넘는 스위스 유라(JURA)사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전국 1만2000여 점포에서 운용하면서 최근 연기자 유연석을 모델로 에디오피아의 '예가체프' 등 2종의 원두커피를 추가했고, 이달부터는 업계 처음으로 스타벅스의 캡슐커피도 판매하며 커피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1만2000여 개 점포를 통해 자체 브랜드 '겟(GET)커피'를 판매하는 CU(씨유) 역시 올 상반기 중에 기존보다 고압력으로 빠르고 강하게 커피 원액을 추출할 수 있는 2세대 커피 머신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2015년 업계 최초로 전자동 드립 방식 추출 방식의 '세븐커피'를 론칭해 원두커피 사업에 뛰어든 세븐일레븐은 현재 전국 6700점에서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는 업계 최초로 아이스 전용 원두에 열대우림 동맹(Rainforest Alliance) 인증을 받은 생두를 30% 사용하고 있다.

편의점 커피 사업은 최근 힘주고 있는 배달 서비스와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저 주문비를 맞추기 위한 상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5000개 점포가 배달앱 '요기요'에 입점한 CU는 4월부터 약 10곳을 대상으로 원두 커피 배달 테스트에 나선다. 고객 반응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S25도 원두커피 배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테스트한 결과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면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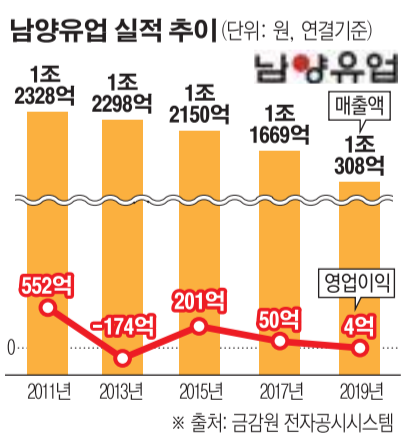
남양유업·미스터피자, 갑질논란 후 '실적 희비'

남양, 소비자 불매·우유 시장 정체 겹쳐 '흑자 턱걸이'
MP그룹, 가맹점 재활성화 프로젝트 통해 '수익성 개선'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남양유업과 MP그룹(미스터피자)의 실적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남양유업은 7년 전 벌어진 갑질 논란 이후 불거진 불매운동과 분유·우유 시장의 성장 정체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실적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MP그룹은 1인 메뉴 강화와 내점 고객 강화를 위한 매장 리뉴얼 등이 소비자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적자 폭을 축소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매출액 1조 308억 원, 영업이익 4억 원을 기록해 적자를 겨우 면했다.

최근 10년간 남양유업의 실적은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렸다. 2009년 연 매출 1조 89억 원을 달성하며 식품업계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이래 2012년 1조 3650억 원의 매출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로 불매운동이 전개되면서 17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201억 원, 4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영업손실을



간신히 면하는 수준이 반복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해 실적 부진 원인으로 출산을 저하에 따른 분유·분유 시장의 성장 정체와 경쟁 심화를 꼽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우유류 매출은 전년 대비 4.99% 감소한 5367억 원, 분유류 매출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2297억 원을 기록했다. 차와 주스 등 기타 부문 매출도 전년보다 줄어든 2643억 원을 기록했다. 매일유업의 유가공 부문(시유·분유·발효유·유음료)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1조1576억 원, 영업

이익이 14.6% 성장한 852억 원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배달 이음식 '케어비'를 론칭하는 등 신사업을 통해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8년 피자업계 1위로 등극한 미스터피자는 2016년 발생한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갑질을 계기로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이후 부진이 계속되며 MP그룹은 상장폐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MP그룹은 지난해 매출액 1099억 원, 당기순손실 2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00억 원가량 줄어든 대신 영업손실을 10분의 1로 줄였다.

매장 재활성화 프로젝트(SRP: Store Revitalization Project)가 수익성 개선을 이끈 동력으로 꼽힌다. SRP는 오래된 기존 다이닝 매장을 최소 비용으로 상권과 고객층에 맞는 매장으로 재활성화하는 가맹점 컨설팅 프로젝트다.

메뉴 개발, 다이닝 시설 전문가로 꾸려진 SRP팀이 피자 뷔페 매장 전환을 기본으로 매장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선 작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262개 매장 중 100여 개가 SRP를 통해 뷔페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리빙화 명가' 브룩스 화이트 에디션 신세계백화점이 스포츠 브랜드 브룩스의 국내 한정 리빙화인 '브룩스 아드레날린'과 '브룩스 글리세린'의 화이트 에디션 제품을 백화점 단독으로 먼저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한국 시장에 맞춰 특별 제작된 브룩스의 신규 리빙화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광주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식품관 단골손님 모십니다"

백화점, 코어고객 선정 할인쿠폰 트레이더스·피코크 전용앱 오픈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먹거리 구매 고객을 '단골손님'으로 끌기 위한 마케팅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매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생필품과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런 추세를 따라 매장을 한번 방문한 고객이 재방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 가득한 멤버십 제도를 신설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부터 '식품관 VIP 고객'만 따로 뽑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VIP 등급인 '식품관 코어(core)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을 월 2회 이상 방문하고 5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정된다.

'식품관 코어 고객'은 월 2회, 신세계 바이어가 직접 선정한 계절 식재료 소개와 함께 레시피, 보관 방법, 식재료 할인 쿠폰 등을 담아 '계절과 식탁'이라는 스마트메시지를 받는다. '계절과 식탁'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되는 일종의 카탈로그로 본문 내 링크 접속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트레이더스와 이마트 피코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무료 멤버십 '트레이더스 클럽(사진)'과 '피코크 클럽'을 7일 오픈한다.

트레이더스 클럽은 매주 바뀌는 '클럽 전용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클럽 회원들은 신상품, 인기상품, 시즌상품 등 특정 상



품에 대한 별도의 할인 혜택을 받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할인 쿠폰'도 받는다.

이마트는 피코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피코크 클럽'도 선보인다. 피코크 클럽은 스탬프 적립 기반의 멤버십으로, 분기별로 나눠 운영한다. 이마트에서 피코크 상품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스탬프 1개를 지급한다. 스탬프를 누적 3, 6, 9개 적립할 때마다 다음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30% 할인쿠폰(각각 3000·6000·9000원환도)을 제공한다. 또 이번 2분기 안에 총 10개의 스탬프를 적립하면 '덴비 파스타볼(2p)'을 선착순 500명에게 추가 증정한다.

최후략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유통업 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트레이더스와 피코크 충성 고객을 늘리기 위해 전용 멤버십을 오픈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고객이 더 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홈플러스, 싱가포르에 화장지 긴급 수출

코로나19 영향 생필품 품귀 대응

홈플러스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생필품 품귀 현상이 발생한 싱가포르에 PB 화장지 2종을 긴급 수출한다.

홈플러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Qoo10(큐텐)'에 가성비 PB 브랜드 'simplus(심플러스)' 화장지(3겹, 30롤)와 미용티슈(250매, 6입) 초도 수출 물량 2000여 개를 공급해 6일 부산항에서 출항한다.

이번에 홈플러스가 수출한 PB 화장지 2종은 큐텐이 지역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큐텐의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는 주요 식

료품의 9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달 18일 부로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국경을 봉쇄해 생필품의 사재기가 발생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국경 봉쇄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현지인들의 생필품 사재기가 이어지면서 한 슈퍼마켓 체인은 화장지를 비롯한 국수, 쌀 등 주요 생필품의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거주하는 3만 교민들도 뜻하지 않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이번 수출 외에도 미국과 홍콩, 마카오, 중국 등에 우수한 품질의 PB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몽골 등 다양한 국가와도 상품 수출을 협의 중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의미 없는 '목표주가'... 절반도 못 미친 종목 수도록

**과리율 100% 넘는 종목 11개
단기급락에 증권사들도 '난감'
"변동장세 신속한 조정 어려워"
당장 저가 매수 평가는 무리**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 이후 반등하고 있지만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종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불만이 고조되면서 았다튀 목표주가 하향 조정에 나서는 상황이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목표주가 추정 증권사가 3곳 이상이면 목표주가 과리율이 100% 넘는 종목은 11개로 집계됐다. 목표주가 과리율이란 각 증권사가 산정한 목표주가의 평균에서 현재 주가를 뺀 뒤 이를 현 주가로 다시 나눈 비율이다. 과

리율이 클수록 목표주가가 현 주가 대비 높은 상황으로 과리율이 100%일 경우 목표주가는 현 주가의 2배라는 의미다. 과리율이 가장 큰 종목은 코스피 상장사인 현대그린푸드(125.97%)다. 이어 도이치모터스(121.59%), 효성티앤씨(115.65%), 영원무역(109.8%), 롯데정보통신(108.41%), 아모텍(108.22%), 금호산업(105.05%), 효성첨단소재(105.01%),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2.95%), 지누스(102.25%), 대한해운(100.49%) 순이다. 지난날 중순부터 국내 증시가 폭락 장세를 보이며 과리율 100%를 넘는 종목이 속출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코스피가 8.39% 코스닥이 11.71% 하루 만에 폭락하며 14개 종목이 과리율 200%를 넘기도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스피·코스닥시장 통틀어 과리율이 100%를 넘는 종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목표주가 과리율 100% 이상 종목 현황 (단위: 원, 증가 3일 기준)

종목명	시장구분	목표주가	종가	과리율(%)
현대그린푸드	유가증권	15,750	6,970	125.97
도이치모터스	코스닥	13,650	6,160	121.59
효성티앤씨	유가증권	226,429	105,000	115.65
영원무역	유가증권	47,100	22,450	109.80
롯데정보통신	유가증권	57,000	27,350	108.41
아모텍	코스닥	38,000	18,250	108.22
금호산업	유가증권	13,000	6,340	105.05
효성첨단소재	유가증권	126,900	61,900	105.0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가증권	39,575	19,500	102.95
지누스	유가증권	113,667	56,200	102.25
대한해운	유가증권	27,667	13,800	100.49

※출처: 에프앤가이드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라면 목표주가 과리율이 높은 종목은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 종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리율이 높아진 것은 증권사들이 단기 급락 속에서 제때 목표주가를 조정하지 못한 탓이 크다. 때문에 목표주가 과리율이

높다고 해서 당장 저가 매수해야 할 종목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과리율이 급격히 늘면서 증권사들은 목표주가 낮추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19일 과리율이 244.48%까지 치솟은 위메이드는 목표주가가 당시 4만8400원에서 현재 3만7600원으로 조정되면서 과리율도 78.20%까지 낮아졌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기업보고서는 총 888건으로 이 중 528건(59.46%)이 종전보다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1월 하향 보고서 비중이 16.79%, 2월 26.71%인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이달에도 하향 보고서 비중은 56.71%(93건)로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이 이뤄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을 내다보는 목표주가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과리율을 줄이기 위한 목표주가 조정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코로나 덕 본 CB 투자자들 발뺎 대비

**주가 급등한 일부 기업들 전환청구권 행사
대부분 미상환 CB 남아 차익 실현 이어질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일부 기업의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이 연달아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 기업 대부분 미상환 CB가 상당량 남아있어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 추가로 엑시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에스맥, 맥이씨에스, 바이오리더스, NE능력, 휴마시스 등의 코스닥 상장사에서 CB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 변동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들 기업 중 대다수는 코로나19 테마주로 묶여 상한가를 치거나 연이은 급등세를 기록했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를 개발·수출하고 있고, 바이오리더스는 바이러스성 질병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다. 맥이씨에스는 기존 영위하던 인공호흡기 사업에서 매

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3일 686만 주에 대한 CB 전환권이 행사된 에스맥은 자회사 다이나나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관련 임상 시험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지난달 중순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다. 에스맥은 다이나나 지분 지분 23.81%를 보유하고 있다. 전환 청구가 이뤄진 CB는 9·11·12회차로, 대상자는 모두 한국채권투자자문이다. 전환물량은 주로 2018년 5월 발행된 11회차 CB(684만9315주)에서 나왔다. 이 CB의 경우 지난해 7월 2일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했지만 최근 주가 급등세로 CB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장에정일은 14일이다. 11회차 CB 전환가액은 803원, 9회차와 12회차는 각각 815원과 931원으로 모두 1000원 미만이다. 발행 당시 전환가는 1300원대부터 2000원대 수

준이었지만 이후 부진한 주가 추이가 계속되면서 수차례 리픽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6일 종가 기준으로 물량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29억2700만 원가량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다. 휴마시스의 경우 지난달 26일과 이날까지 세 번에 걸쳐 2회차 CB 35억 원어치가 주식으로 전환됐다. 전환가는 1375원, 전환 당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보면 예상 차익은 4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전환 당일에는 기타법인 및 사모펀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시장에선 해당 물량에 전환 주식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마다 시장에 풀린 양 이상을 개인투자자가 사들이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다. 최근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기업들 대부분 아직 미상환 CB가 남아있어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 CB 투자자가 추가로 투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에스맥의 경우 9회차 97만8500주, 11회차 128만6000주, 12회차 110만 주가량이 언제든지 전환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일단 내고보자? 사업보고서 수정 속출

**코로나 사태에 결산 지연
시한 쫓겨 급히 제출한 탓**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급하게 제출한 상장사들이 잇따라 정정 공시를 내고 있다. 사업보고서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2019년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중 115개사(코스피 45사, 코스닥 70사)가 기재 정정을 공시했다. 전년(102사)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로 감사와 결산이 늦어진 상장사들이 시한에 쫓겨 급히 제출한 영향이다. 올해 코로나 여파로 상장사들이 비상사태에 직면하면서 총 31곳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주로 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해외에 위치해 결산이 어렵거나 감사 지연 등이 발생해 지연된 곳들이다. 기한 내 제출한 상장사도 오기가 다수 발견되면서 수정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 감사가 늦어지면서 마감 하루 전에 급하게 작성해 제출 마감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감사의견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가가 반토박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또 촉박하게 마무리하면서 주주총회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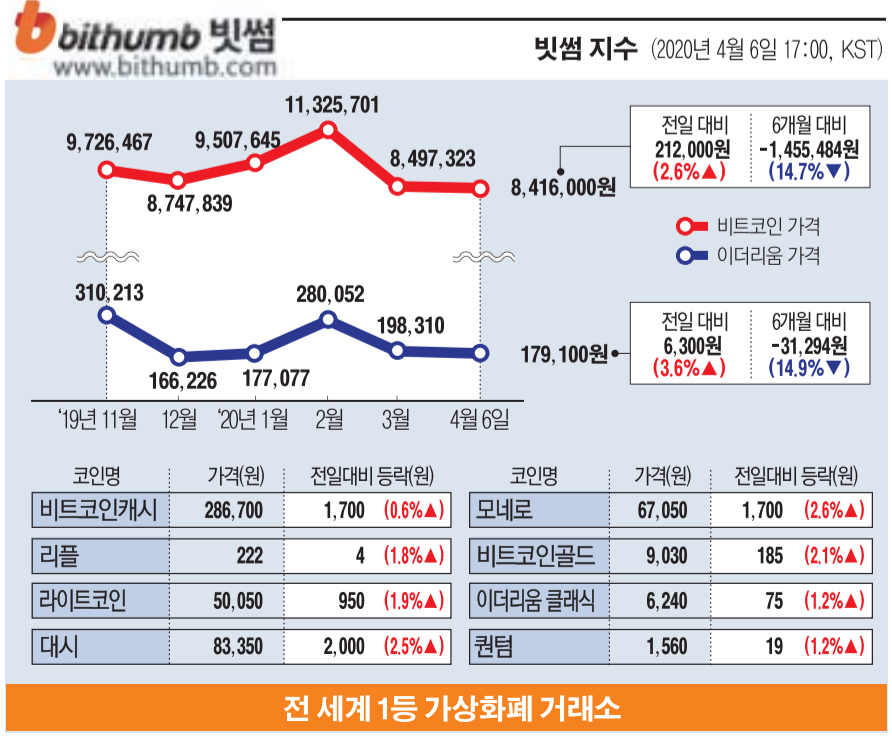
외이사 이름을 잘못 적어 주주들의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덧붙혔다. 실제 캔서롭은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총 10개 항목에 대한 기재 정정을 공시했다. 경영진이나 사외이사의 현황 등에 대한 수정이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8개), 교보증권(5개) 등도 다수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뉴트리리는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했고, LIG넥스원과 코네티바이오는 임직원 수를 잘못 기입했다. 동진메딕도 이준규 대표이사 부회장을, 이준형 부회장에서 이준규 부회장을, 이준형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직위를 정정했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임원 임기만료 오기) △팬스타엔터프라이즈(자본금 기재 오류) △서호전기(IFRS XBRL 편집기를 사용한 재무제표 제작성) △한미사이언스(회계감사인 변경) △아이마켓코리아(재무제표 단위 수정) 등 사유도 다양했다. 갤럭시에스엠이나 다스코 등은 하루새 두 차례나 정정공시를 낸 기업도 있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환경이나 재무 등 급하게 바뀐 부분도 있었고 현지 감사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메리츠證, 경북 결식 우려 아동에 '따뜻한 한 끼'

'참사랑 봉사단' 활발한 나눔
메리츠증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식사 지원을 하는 등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31일 경북 지역의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치킨 브리토 3만7000여 개를 사회복지법인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으로 아동 결식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리츠증권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발적 봉사단체인 '메리츠 참사랑 봉사단'을 2007년 출범하고 매월 한 차례 씩 다양한 테마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 중이다. 봉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지속해서 발굴해 다양한 테마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 생신 잔치, 무료급식 지원 활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배달 등을 매월 돌아가면서 수행하고 있다. 또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미혼모 시설단체인 구세군 두리흠을 분기한 차례씩 방문해 아기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매년 여름마다 진행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강요 없이 100%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실무진이 전 직원에게 사내 메일을 보내면 관심 있는 이들이 신청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웃고 즐기며 참사랑을 나눌 수 있다. 봉사단은 적극적인 공헌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제2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 사회공헌대상(저소득·소외계층부문)', 2015년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 표창장'을 받았다. 메리츠참사랑봉사단 실무를 맡고 있는 결재업무팀 김창식 팀장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만나 사랑을 나눌 때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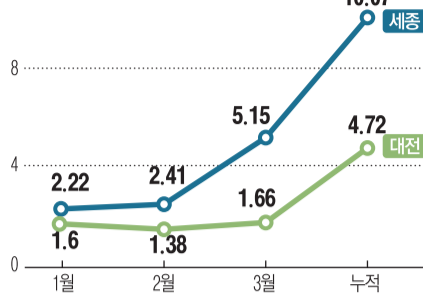
'아파트값' 뛰는 대전 위에 나는 세종

작년 집값 -2.12%로 바닥 기던 세종 입주물량 반토막으로 줄며 폭등세 대전은 코로나 여파 등 상승세 꺾여

지난해 맥을 못추던 세종시의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들어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핫'했던 대전을 제압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등세는 한풀 꺾인 상태이지만 줄어드는 입주 물량에 전세(戰勢)는 이미 역전된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들어 3월까지 10.07% 상승했다. 전국 최고 상승폭이다. 월간으로 들여다보면 1월과 2월 각각 2.22%, 2.41% 오른데 이어 3월엔 5.15% 뛰었다. 올해 초 4억2000만~4억9750만 원에 거래되던 세종시 중층동 가재마을10단지 전용면적 84㎡ 형은 지난달 5억6000만 원까지 뛰었다. 반면 대전 아파트값 상승폭은 세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월 1.60% 상승한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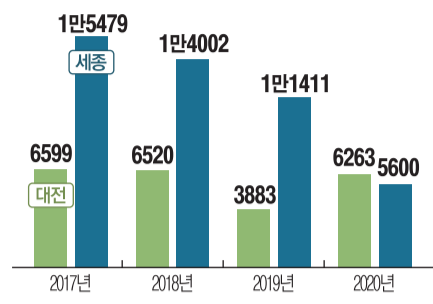
세종 및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격격 상승률 (단위: %)



이어 2월과 3월엔 각각 1.38%, 1.66% 오르는 데 그쳤다. 누적 상승률은 4.72%다. 지난해 대전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도 0.20%로 세종(0.24%)보다 낮았다.

세종의 지난해 집값은 2.12% 미끄러졌다. 그 사이 대전은 무려 8.07% 폭등했다. 인접한 두 지역 집값의 희비를 가른 건 주택 공급량이었다. 세종에서 지난 3년간(2017-2019년) 쏟아진 아파트 입주 물량은 무려 4만1000가구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1만3631가구 수준이다. 이는 2007년에서 2016년 10년 동안 이곳에 나온 새 아파트 연평균 수치(6676가구)의 2배를 넘는 물량이다. 추가 유입 인구는 줄어드는

세종 및 대전 아파트 입주물량



데 물량 공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집값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세종에 집이 붓물처럼 쏟아지는 사이 대전은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시장에서 소외되며 공급난에 허덕였다. 지난 3년간 대전에서 입주한 아파트는 연평균 5667가구로 세종에서 나온 공급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 남치는 유동성과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물려온 외지인들이 집값 상승에 부채질을 하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일각에선 세종 거주자들이 교육·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대전으로 재유입된 것 역시 집값 상승을 부추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들어 판세가 역전된 원인은 역시 공급

량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전의 올해 입주 물량은 전년(3883가구)보다 늘어난 6263가구인 반면 세종은 작년의 반 토막 수준인 5600가구에 쪼그라든다. 세종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전보다 적은 건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대전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직전 3년 연평균 물량을 크게 압도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게 아녜도 대장주 아파트값이 빠지고 있어 상승세가 한 풀 꺾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 대전에서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서구 둔산동 코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02㎡ 형은 지난달 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지난 2월 실거래가(10억4000만 원)보다 1억 원 가량 낮아진 가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값 하락 전망이 많지만 지난해 급등세에 대한 피로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대전은 가격 급등 피로감에 당분간 주택시장이 쉬어갈 가능성이 큰 반면 세종은 가격 하방 요인(과잉 공급)이 제거된데다 '갭 매우기'(가격 따라잡기) 현상으로 한동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코로나로 경매 '올스톱'

지난달 입찰기일 변경 68% '최고' 평균 응찰자수는 전월보다 0.3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지방법원이 일제히 멈춰서면서 부동산 경매 입찰 기일 변경 비율이 6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2건의 경매 일정이 취소된 셈이다. 역대 최고치다.

6일 지지옥션의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 예정이던 경매 물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 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낸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다. 법원 휴정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법원 경매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인 3876건의 입찰만 진행됐다. 진행 비율(예정건수 대비 진행건수 비율)은 25.7%이었다. 월간 경매 사건의 진행 비율 평균치(83.3%) 대비 3분의 1에 그친 수준이다.

한편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3876건으로 이 중 136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35.2%,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물건당 4.8명으로 집계됐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HAGO

<p>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p>내 PC 원격접속</p> <p>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일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p>	<p>채팅&메신저 (WE톡)</p> <p>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육지, 화상회의, 투표, 알림, 캘린더 등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입니다.</p>	<p>화상회의</p> <p>국·외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를 있으면 화상회의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문자서비스</p> <p>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형 일괄 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들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p>			
<p>팩스</p> <p>팩스 기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팩스 보내기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p>메일 (1G)</p> <p>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담당자를 할 업무용 메일,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메일 서비스입니다.</p>	<p>전자결재</p> <p>기기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p>	<p>웹오피스</p> <p>광고, 영업, 직원관리, 회계 등 다양한 목표를 지원하는 웹 오피스입니다. 이제 실재에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웹드라이브 (10G)</p> <p>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협업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p>	<p>일정관리</p> <p>일정 초대와 공유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에 관련된 일정, 지출, 그리고 회의 약속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합니다.</p>	<p>할일관리</p> <p>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하는 지시할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p>	<p>기본정보관리</p> <p>조직도를 통한 직황관계, 수많은 거래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업데이트/공유,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로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경기 남부권 교통호재 수혜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

사업명	위치	총가구수 (일반분양)	분양시기	건설사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714(588)	분양중	대우건설
더샵 광고산 퍼스트파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111-4구역	666(475)	4월	포스코건설
신동탄 포레자이	화성시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1297	4월	GS건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광명시 광명동	1335(464)	5월	대우건설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닥터아파트 및 각사

신안산선·수인선·월곶판교선...철도개통 호재 잇따라 경기남부 집값 상승 '눈에 띄네'

철도 개통 호재에 경기 남부지역 집값이 들쭉이고 있다. 경기 안산시 원곡동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전용면적 59㎡형 입주권은 최근 시세가 5억 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 분양 때(분양가 3억515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가까이 웃돈이 붙었다. 지난해 2월 실거래가(4억5860만 원)와 비교해도 프리미엄이 4000만 원 넘게 올랐다. 이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은 초지역 교통 개발 호재다. 초지역엔 지금도 수도권 전철 4호

경기 남부에서 교통 호재를 누리는 건 두 지역뿐만 아니다. 앞으로 10년간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을 포함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소사원시선, 인천발(發) KTX, 신분당선 연장 등 굵직한 철도 공사가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서울과 인천, 수원, 안산, 시흥 등의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분양시장도 뜨겁다. 2월 수원 시매교동에서 분양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45.72대 1까지 올랐다. 지난달 분양한 시흥시장곡동 '시흥정형 영무 에다움' 1순위 청약 경쟁률도 평균 50.15대 1을 기록했다. 건설사들도 경기 남부를 주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7일부터 안산시 원곡동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58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표적인 초지역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포스코건설도 이달 수원시 조원동에서 '더샵 광고산 퍼스트파크' 아파트 475가구 분양에 나선다. 수원시 등은 이단지 인근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인덕원-광고 북선 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경기 화성시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신동탄포레자이' (전용 59-84㎡ 총 1297가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인덕원-동탄 북선전철(2026년 개통 예정) 서천역(가칭) 역세권 입지에 동탄도시철도인 트램(2027년 개통 예정) 반월역(가칭)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경기 시흥시 광석동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도 교통 호재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 전용 84㎡ 분양권 호가는 7억 3500만 원까지 상승했다. 2017년 이 아파트는 4억1000만~4억2000만 원대에 분양했다. 단지에서 1km 떨어진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집값 효자다. 이 역에서도 2024년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듬해엔 시흥과 판교를 잇는 경강선 월곶판교선도 운영을 시작한다. 박종화 기자 pbell@

‘n번방은 범죄단체’ 입증됐 최고 무기징역

檢, 조주빈 구속만료 앞두고 검사 2명 추가... 혐의 입증 주력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일주일 남은 조 씨의 구속기간 내 혐의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여성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 씨를 강력부가 위촉한 별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력부는 조 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 군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주말인 4일과 5일 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 혐의를 받는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29)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한모(26) 씨 등을 차례로 불렀다.

검찰은 이달 3일 일부 공범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n번방’ 사건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 체제 등 네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성범죄 혐의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 씨는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가’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들과 실제 모르는 사이이며 통솔 체제를 부인하고 있어 해당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입증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달 13일로 만료되는 조 씨의 구속기간 내 일부 혐의를 우선 기소하고,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원격수업 지원... ‘1만 커뮤니티’ 임명식 고3과 중3의 온라인 개학을 시울 앞둔 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 제회관에서 열린 ‘1만 커뮤니티’ 온라인 임명식에서 대표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현장 교사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1만 커뮤니티’는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별 대표 교사와 교육부·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동생, 응동중 공사 하도급 받아 진행”

고려종합건설 경리부장 공판서 “직접 자금 결제”... 현장소장 증언과 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응동중학교 이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는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이 응동학원 관련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현장소장)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씨의 공판에는 부친 고(故) 조병현 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의 경리부장 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씨는 “고려시티개발이 응동중 공사를 했던 것이 얼핏 기억이 난다”며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조 씨의 응동중 공사 하도급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응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하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

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응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고려시티개발은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사다. 임 씨의 증언대로 응동중 하도급이 실제로 있었다면 조 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아닌 게 된다. 반대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면 조 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된다.

검찰은 조 씨가 부친과 공모해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검찰은 앞서 고려종합건설 현장소장 출신인 김모 씨가 하도급받은 것이 전

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언을 언급했다. 그러자 임 씨는 “고려시티개발이 응동중을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고려시티개발 내부 계약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씨는 또 “자금 결제를 직접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돈만 나갔을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기성 부분만 어음이 집행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계약서 내용이 고려시티개발 회사가 진입로 등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있었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모든 책임을 지니 (고려시티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모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코로나 관련 법률상담 급증 여행 등 위약금 분쟁 많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달 48만3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예할 방안이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증가한 것

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월 말까지 진행한 법률 상담이 모두 821건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이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가운데 여행과 결혼, 돌잔치 등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차 분쟁 120건, 폐업과 휴업에 따른 임금 관련 분쟁 65건 등 서민 생계 관련 법률 상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용 기자 deep@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부활절 앞두고 현장예배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서울시 '집회금지' 2주 연장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집회금지 명령도 2주간 연장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6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5일 현장 예배를 시행한 교회가 1914곳”이라며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의 1817곳보다 97곳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12일 부활절이 다가오에 따라 현장 예배 교회가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더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는 또 집회 금지 명령을 어겼다. 이미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어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추가로 고발하고 집회금지 명령을 19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현장 예배 점검을 통해 18개 교회에서 2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 본부장은 “적발 교회 숫자는 2주일 전 281곳, 지난주 56곳, 어제 18곳 등으로 매주 줄어오고 있다”며 “어제 적발한 위반 사항은 모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배우들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공연 관람객들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 또 강행 채증자료 토대로 추가 고발”

‘오페라...’ 관객 8578명 모니터링

의 명단을 확보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배우·스태프 등 접촉자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캐나다 국적 댄서 1명이 지난달 31일 최초 확진되고 지난 2일 미국인 확진자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2명”이라며 “3일 기준 접촉자는 총 141명으로 배우 및 스태프 127명, 마사지사 1명, 무대기술팀 13명”이라고 설명했다. 나 국장은 “공연을 관람한 블루스퀘어 관객 78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외부접촉을 자제하고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라는 안내문자를 3일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나 국장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9세 어린이가 최초 확진된 뒤 접촉자 94명 중 4일에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며 “78명은 음성이며 1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직원 중 686명에 대한 전수결과를 했고, 66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17명은 현재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건물 일체형 태양광’ 강남·양천에 시범 보급

시설 3곳 선정... 8월까지 설치 年 최대 700만원 전기료 절감

8월 민간 업무용 건물 2곳과 교회 건물 1곳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이 설치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 대상으로 강남구 ‘아리빌딩’, ‘알파빌딩’ 과 양천구 ‘세신교회’ 등 최종 3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기존 태양광 모듈과 달리, 외벽 색과 유사한 대리석 디자인이나 회색 계열의 외장재 형태로 설치된다”며 “육안으로는 외벽인지 태양광인지 구분이 어렵고 기존 외장재와 일체감을 이뤄 태양광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건물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3개 건물 외벽에 총 141kW의 컬러형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건물당 연간 1.4~5.4만kWh 규모의 전기를 자체 생산, 연간 114만원~700만원의 전



서울 강남구 소재 알파빌딩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전(사진 왼쪽)·후(오른쪽).



서울 강남구 소재 알파빌딩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전(사진 왼쪽)·후(오른쪽).

기료 절감이 기대됐다. 더불어 연간 53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했다. 이는 30년 산 소나무 약 8000그루를 심는 효과다.

세 곳의 총사업비는 약 13억 원으로, 서울시가 70%(9억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건물주가 각각 부담한다. 이달 중 착공해 오는 8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내년부터 민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건축

및 소재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서울형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원기준, 시공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 적정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송파구, 사물인터넷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본격화

서울 송파구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도입한 공유주차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유주차 플랫폼 서비스’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구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장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주차 공

간 제공자는 이용료의 50%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고 운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송파구는 3개동에 향후 1년간 단계적으로 센서를 추가 설치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성과를 분석해 송파구 전역 1만5000면에 설치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IoT 기술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 서비스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양천구, 취약계층 생활비 74억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1만3000가구 ‘소비쿠폰’ 최대 140만원

서울 양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6일부터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3000여 가구에 총

74억 원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소비쿠폰(선불카드)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문자로 안내받은 날짜에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소비쿠폰(선불카드)을 수령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는 직접 방문

해서 전달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별 지급액은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이다.

또한 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구별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2-2620-4677)로 문의하면 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비야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성격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일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수롭지 않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수롭지 않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수롭지 않다. 후속한 성장형기업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수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업에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한 기술이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가치를 얻는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80원 | 215.800원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세단형 쿠페·쿠페형 세단 유형



4도어 쿠페
벤츠 CLS

4도어 쿠페
BMW 8시리즈

4도어 쿠페
아우디 A7 스포츠백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 G80

쿠페와 세단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2000년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시작으로 '쿠페=2도어' 공식을 깬 4도어 쿠페가 속속 등장했다. 세단도 지붕 라인이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쿠페형 디자인이 대세다.

쿠페·세단 경계 뛰어넘은 프리미엄 차

모든 천재의 공통점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자동차에도 분명 시대를 앞서가는 비운의 천재가 많다. 이들이 등장하며 내놓은 콘셉트는 당시 시장에서 이 외면받았다. 그러나 훗날에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유러피언 크로스오버를 지향했던 현대차 라비타가 대표적이다. 해치백 소형차 ‘클릭’을 베이스로, 차 지붕을 높여 실내공간을 넉넉하게 뽑아낸 차였다. 다만 시장은 라비타를 철저히 외면했다. 승객 공간은 넉넉했으나 짐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라비타는 후속 없이 5년 만에 단종됐다. 라비타가 단종된 가운데 기아차는 2008년 이를 기본 콘셉트로 ‘패션’을 강조한 ‘쏘울’을 출시했다. 쏘울은 특히 미국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이후 3세대까지 거듭하며 기아차의 ‘패션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현대차 라비타가 너무 빨랐던 셈이다.

이후 비슷한 콘셉트는 시장을 장악 중이다. 요즘 인기를 누리는 현대차 코나와 베뉴, 기아차 셀토스 역시 그 옛날 라비타의 기본 콘셉트와 일맥상통한다.

2000년대 초반 독일 벤츠부터

2도어 쿠페, 4도어로 변신

세단은 스포츠카 ‘옆테’ 이식

운전석부터 미끄러지는 지붕 등

제네시스 신형 G80 날렵해져

◇4도어와 쿠페 접목한 새 트렌드 등장 =시대를 앞서간 이른바 ‘트렌드 세터’ 가운데 대성공을 이룬 차가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처음으로 시도한 이른바 ‘4도어 쿠페’ 콘셉트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쿠페(Coupe)란 ‘2개의 도어를 바탕으로 뛰어난 성능을 지닌 스포티 자동차’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런 굴레를 벗어나 쿠페 디자인 속에 4개의 도어를 구겨 넣은 콘셉트를 공개했다.

결국, 벤츠는 2004년 자사의 대표적인 중형세단 E-클래스를 바탕으로 한 단계 윗급 모델로 양산형 CLS를 내놨다. 글로벌

최초로 4도어 쿠페 장르를 개척한 차다. 4도어 세단이 고성능을 지향한 만큼, 승차정원도 4명으로 묶었다. 뒷자리 승객도 각각 독립식 시트를 껴챘다. 다만, 스포티한 감성을 앞세우다 보니 윈도의 위 아래 폭이 너무 좁았다. 차 안에 탄 승객은 유리창으로 얼굴만 내놓고 감혀있는 느낌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CLS의 등장에 깜짝 놀란 건 독일 아우디였다. 아우디 역시 E-클래스의 경쟁상대인 A6를 기반으로 서둘러 쿠페형 4도어 세단 개발에 나섰다. 2009년 미국시장에 A6의 윗급으로 A7 스포츠백 콘셉트를 처음 선보였고 이듬해 양산형을 내놨다. 앞서 벤츠 CLS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만큼, 아우디는 좀 더 과감하게 쿠페형 세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CLS가 일반적인 트렁크를 장착했지만, 아우디 A7은 해치백 타입의 트렁크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둘러 메르세데스-벤츠 CLS를 카피했던 아우디와 달리 자존심이 강한 BMW는 다른 길을 택했다. 벤츠와 아우디가 각각

E-클래스와 A6를 바탕으로 4도어 쿠페를 지향한 반면, BMW는 장거리 투어를 위한 ‘그란투리스모’를 내세웠다. 벤츠와 아우디가 스포티한 쿠페를 지향한 것과 달리 BMW 그란투리스모는 키를 낮춘 SUV에 가까웠다. 최고급 7시리즈 플랫폼을 바탕으로 거주 공간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높은 상품성과 가치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결국, 2011년이 돼서야 BMW도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4도어 쿠페를 내놓는다. 2도어 럭셔리 쿠페를 대변했던 6시리즈에 4도어 세단을 추가한 것. 이렇게 독일 프리미엄 3사의 4도어 쿠페는 본격적으로 삼파전을 시작하게 됐다.

◇기아차 GT 콘셉트로 4도어 쿠페 시도 =2010년대 들어 글로벌 전역으로 쿠페 타입의 4도어 세단이 영역을 확대했다. 세단은 반듯반듯한 3박스 타입이어야 한다는 굴레도 이때부터 무너졌다. 차체 지붕 곡선이 짧은 트렁크와 부드럽게 이어지는 ‘쿠페형 세단’이 속속 등장했다.

2010년 현대차 YF쏘나타가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확대됐다.

네모반듯한 NF쏘나타와 달리 쿠페 스타일에 근접한 YF쏘나타는 디자인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현대차 8세대 쏘나타와 기아차 3세대 K5까지 중형세단 전반에 이런 트렌드가 널리 퍼졌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4도어 쿠페를 지향한 모델은 기아차 스타팅이다. 2011년 콘셉트카 기아 GT는 훗날 등장할 스타팅어의 예고편이었다. 스타팅어는 결국 스포티 브랜드를 지향하는 기아차의 고성능을 대변하고 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역시 마침내 4도어 쿠페 스타일을 내세웠다. 브랜드의 출발점이자 핵심 모델인 G80이 3세대로 거듭나면서 이 영역에 뛰어 들었다. 쿠페 타입의 4도어 세단은 구조상 2열 승객의 머리 공간이 비좁고,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뽑아내기 어렵다. 다만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기 위한 기술도 크게 발전했다.

2열 승객의 머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붕 안쪽 내장재를 파내기 시작했고, 비좁은 트렁크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우아한 곡선미에 ‘심쿵’... 380마력 파워 ‘짜릿’

타보니 제네시스 신형 G80

변속기 레버 대신 동그란 다이얼 간결한 대시보드에선 여백의 미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의 밑그림이었던 G80이 3세대로 거듭하며 ‘존재의 당위성’이 다시 커졌다. 새 모델은 간결함과 대담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 우아한 곡선 속에 짜릿함이 가득한 주행성능도 담고 있다.

3세대 G80은 제네시스 디자인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독일 포르쉐가 수십 년 동안 원형 헤드램프를 앞세워 그들의 강력한 레거시(Legacy·유산)를 완성했다면,

이제 제네시스도 위아래 2줄로 나뉜 헤드램프(퀴드램프)로 새 역사를 쓴다. 퀴드램프가 브랜드의 상징성을 틀어쥔 셈이다. 동시에 “앞으로 경박스러운 바꿈질은 하지 않겠다”는 디자인 전략도 담겨있다.

목적한 도어를 열어보면 간결한 인테리어가 눈앞에 펼쳐진다.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화려한 라인을 자랑하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작고 간결하다. 여러 가지 조작 버튼을 한 자리에 모으거나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했다. 나머지를 ‘여백’이라는 매력으로 채웠다.

변속기 레버는 사라졌다. 대신 동그란 다이얼이 자리잡았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죄다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니 서둘러 익숙해져야 한다.



대시보드 위에 심어놓은 14.5인치 AVN은 한눈에 쉽게 들어온다. 조작하기에 거리가 멀지만 시프트 다이얼 뒤에 자리한 동그란 모양의 ‘통합 컨트롤러’로 조작할 수 있다. 원형 패드 위에 손 글씨를 써도 인식한다. 이도 저도 싫으면 ‘음성명

령’을 내리면 된다.

V6 3.5 l 램다엔진은 처음으로 과급기 ‘터보’를 얹어 최고출력 380마력을 낸다.

시프트 다이얼을 D 레인지에 맞추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는 우아하게 정지 상태를 벗어난다. 가속페달의 초기 응답력은 비슷한 배기량의 전문구동 세단보다 반박자 느리다. 앞뒤 50:50의 무게 배분을 적절히 뽑아낸 만큼, 급출발이나 급가속 때 앞쪽이 불끈 솟구치는 이른바 ‘스퀴드’ 현상도 없다.

초기 우아한 움직임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 점진적으로 속도를 얹어보면 제법 날카롭게 변한다. 이때부터 엔진은 직분사 영역에 진입한다.

디자인만 파져보면 두터운 배기음을 한 음뭉 쏟아낼 법도 하지만, 여전히 맑고 뜨거운 배기만 흩어 뿌린다.

새 모델에는 이 시대 현대·기아차가 개

발해 내놓을 수 있는 최첨단 전장장비를 총망라했다. 레벨 2.5수준의 고속도로 주행보조장치는 물론, 달릴 때 마주하는 수많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전자장비를 가득 채웠다.

4년째 2세대 G80을 타고 있는 기자의 눈에 새 모델은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상품성을 따졌을 때 모자람이 없다.

차 전체에 고급차의 굴레를 벗어난 우아함이 차고 넘치고, 나머지는 여백의 아름다움으로 채웠다. 가속페달을 밟고 운전대를 돌릴 때마다 어깨뼈까지 타고 올라오는 짜릿함 역시 또 하나의 반전이다.

가격은 3.5 터보를 기준으로 5900만 원 언저리에서 시작한다. 물론 몇 가지 옵션에 욕심을 내면 금강 7000만 원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시승을 마칠 무렵 ‘한 대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온다.

김준형 기자 junior@



우리집엔 어떤 스타일의 마루가 어울릴까요?

마루는 우드패턴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SB마루를 만나보세요.
우드패턴은 물론 대리석 패턴, 헤링본 시공도 가능하며,
에스비 강, 에스비 엠보까지 다양한 마루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빛나게 합니다.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갖춘 강마루 - 한솔 SB마루



한솔 sb마루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루
대리석 / 우드 / 헤링본 / 에스비 강 /
에스비 엠보



습기에 강한 실용마루
장시간 습기에 노출시에도 치수 변화 및
팽창에 안정적



친환경 소재의 건강한 마루
아토피인증, 항곰팡이 인증 획득

※제품별 친환경 SB 전용 접착제 사용(황토, 프리미엄)

올해도 사상최대 실적 낙관하는 김예환 유니퀘스트 대표

“칩셋에 자체 솔루션 장착 고객사 만족”

인텔·퀄컴 제품 단순 유통 아닌 국내 공급처에 맞게 패키징화 5G·자동차 전장 부문 고성장 美 모반디와 협업도 성과 기대

“자동차 전장, 5G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예환(사진) 유니퀘스트 대표는 6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4년 유통권시장에 상장한 유니퀘스트는 반도체·IT 기기에 장착되는 칩셋에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패키징으로 공급하는 회사다.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에서 칩셋을 공급받아 자체 솔루션을 더한 후 국내 IT, 통신장비 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다.

김 대표는 “단순 유통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칩셋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 솔루션을 더한 후 고객사에 공급하기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며 “지난해 매출액은 335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각각 69억 원, 224억 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전장, 모바일 디바이스 부문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전장 부



문에서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자동차용 통신모듈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면서 실적이 증가했다. 모바일 디바이스 부문은 스마트폰에 부착되는 칩셋, 무선충전기 칩셋 매출이 늘어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그는 “최근 경쟁력 있는 유통사로 공급 물량이 쏠리면서 올해도 신규 판권 계약으로 수백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할 전망이다”며 “이 같은 흐름이면 지난해 매출 기록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올해 유니퀘스트는 5G 부문을 핵심 성장사업으로 밀고 있다. 현재 국내 30여개 통신장비 기업에 기지국, 중계기 등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셋 등을 공급

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국내외 판로를 넓히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모반디(Movandi)와의 협업도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있다. 유니퀘스트는 미국 5G통신기술 기업인 모반디의 5G 안테나 관련 핵심 기술과 제품 공급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모반디의 안테나 칩셋을 국내 통신사, 해외 통신사용 통신장비에 장착하는 공급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 투자한 종속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우선 지분 35.7%를 보유한 드림텍은 PBA모듈, 지문인식모듈, 자동차LED모듈 등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다. 올해 초에는 카메라모듈 및 3D센싱 전문 기업 나무가를 손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비상장 종속회사로 지분 55.2%를 보유한 에이아이매틱스는 전략적 파트너 일본 NGK사와 내년 초 일본에서 4단계 도심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에이아이매틱스는 A.I·ADAS알고리즘 기술 기반 기업으로, 현대·기아차에 ADAS OEM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는 “에이아이매틱스의 차량관리시스템 사업은 플랫폼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장성이 크다는 게 장점”이라며 “2023년 상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ih@

“달러화 시대 끝났다, 금·은 사라”

‘부자 아빠...’ 저자 기요사키 “저축하지 말라” 조언



경제·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사진)가 미국달러화의 시대는 끝났다며 “금, 은, 비트코인을 사라”고 조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양적완화(QE)를 재개하면서 장기적으로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5일(현지시간)마켓워치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통해 “정부가 당신에게 무료 자금을 지급한다면 저축하지 말고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라”고 강조했다. 기요사키는 앞서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연방 준비제도(Fed)가 수조 달러 규모의

달러화폐를 찍어내고 제로(0) 금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저축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쉽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달러화는 갈수록 구매력이 감소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용이 사라지는 순간 종이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 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금과 은은 ‘신의 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람의 돈’이라고 지칭하면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지폐보다 더 신뢰할 만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요사키는 최근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은을 밀고 있다. 1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은은 모든 자산군 중 가장 저평가된 저위험의 최고 투자 대상”이라며 “은 가격이 온스당 40달러로 오르기 전까지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석동 기자 hong@

웰컴금융그룹, 구로 본사에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웰컴금융그룹(웰컴저축은행·웰릭스렌탈·웰컴크레디타인대부 등)이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웰컴금융그룹은 3일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 6일 밝혔다.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된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해진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웰컴금융

그룹 전체로 확대됐다. 3일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가 구로 본사로 방문해 진행되는 헌혈캠페인(사진)에서는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도 첫 헌혈자로 나섰다. 구로디지털단지 본사에서 3회에 걸쳐 3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영업점 근무 임직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 중인 헌혈의 집을 방문해 헌혈에 동참한다. 박은평 기자 pepe@

“코로나19 극복, 노조·회사 모두 최우선 과제”

이성훈 SK이노 노조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노동조합도 회사와 같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성훈(사진)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은 6일 SK이노베이션 전문 보도채널 ‘스키노 뉴스(Skinno News)’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로 SK 울산 공장(CLX)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비장하다는 표현도 모자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장 구성원들은 유가와 마진, 공장가동률 등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일부 공정이 경제성 악화에 따라 가동 중단이 결정되면서 위기의식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생산현장은 안정조업에 더욱 열중해야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발로 뛰어라”며 “이미 많은 위기를 이겨내면서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 의지와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노조는 조합원에게 휴대용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현장에 지급할 마스크 확보를 위해 공급처를 파악하고 있다. 정기보수 현장에 간식을 배부하면서 구성원과 소통하고 현장의 고충을 개선하

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4년 사상 최초의 적자 발생 등 경영위기에든 현장 구성원은 한결같이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에도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지난해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타결했다. 30분 만에 임금 협상을 타결하고, 한 달도 채 안 돼 단체협상까지 마무리했다. 올해 임금교섭도 84.2% 찬성으로 통과되며 4년 연속 교섭 타결을 이어갔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박귀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취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박귀찬(63) 원장이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취임식에서 “학계 간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며 “KIRD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양성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실 독점관리과 과장을 거쳐 포스코 부사장, 포스코인재창조위원장, 단국대 인재개발원장 등 관·민·학(官·民·學)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력개발전문가로, 대통령 표창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박 원장은 고려대 경영대학원 및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MBA, 한국 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개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재훈 기자 yes@

수입차협회, 임한규 상근 부회장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임한규 전 쌍용자동차 전무를 한국 수입차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임한규 선임 상근 부회장은 5월 18일부터 2년 동안 한국수입차협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 부회장은 미국 미시간대학교 전기공학 학사과정, 웨인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 제너럴 모터스 제품 출시 엔지니어로 자동차 업계에 발을 내디뎠고, 이후 포드 자동차, 비스테인, 파커 하니핀, 두산인프라코어, 쌍용차를 거쳤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저작권산업과장 명수현 △문화통상협력과장 최영진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 사장 승진

유유제약은 2019년 대표이사에 선임된 유원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6일 밝혔다.



유원상 대표이사 사장은 유유제약 창업주인 고(故) 유득환 회장 장남이자 2대 유승필 회장 장남이다. 1974년생인 유원상 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현지에서 아더앤더슨, 메릴린치, 노바티스 등 글로벌기업에 근무 후 2008년 유유제약에 입사해 기획, 영업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노은희 기자 sellly215@

◆동양생명 ◇승진 △상무부 서혜연(준법감시인)
◆내외경제TV ◇경제2본부 총괄채재센터장 남윤모 △“충북취재센터 국장 주현주 △“충북취재센터 부국장 이훈규

태광그룹 일주학을문화재단 해외박사 장학생 28기 모집

태광그룹 일주학을문화재단은 해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28기 해외박사 장학사업’을 진행한다. 6일 밝혔다. 1991년 시작한 해외박사 장학사업은 해외 우수 대학원으로부터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총 12만 달러(1억4826만 원)로 4년간 지급된다. 선발 인원은 7명 내외다.

부음

▲김유상(제11대 국회의원·초대 투자신탁협회장) 씨 별세, 김선리 씨 남편상, 김현정(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선임학예연구사)·문정·순정(영국 거주)·나정(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수석) 씨 부친상, 문외술(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씨 장인상 = 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2-2258-5940
▲김용소(제16대 중앙노동위원장) 씨 별세, 김화전(전 대우증권 대리)·연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기관)·연선(동강병원 외과의사) 씨 부친상, 박광인(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사) 씨 장인상 = 6일, 용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031-678-7627
▲권순심 씨 별세, 장용수(매일경제 TV 대표)·희정(현대모비스 직원)·해경·숙정(김천신아병원 간호사)·성수(주식회사 예담 대표) 씨 모친상, 김용섭(삼성화재 김천지점 RC)·김시철(동호산업 이사)·이정인 씨 장모상 =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7일 오전 10시, 02-2258-5940
▲박대균 씨 별세, 황의봉·의대·의상(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 씨 모친상 = 5일,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207호,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1599-4411

‘코로나 이후’의 세계, 한국은 준비하고 있나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가 코로나 이전(B.C.: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지 3개월 만에 코로나 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히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보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주말 국제뉴스 중에서는 ‘마스크 해적질’이 눈길을 끌었다. 마스크 착용을 문화적으로 터부시하던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뒤늦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마스크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언론은 베를린 주정부 부가 중국 생산공장에 주문한 3M 마스크를 미국에 가로채기 당했다며 미국이 ‘현대판 해적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스웨덴은 프랑스 정부가 스웨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 웃돈을 주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갈 물건을 중간에 빼내갔다고 폭로하는 등 서방 선진국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생필품 사재기도 미국과 유럽, 일본과 홍콩까지 전 세계에 만연해 있다. 마스크와 장갑 등 방역물품부터 화장지, 물티슈, 생수 등 생필품까지 동나고 있다. 영국 요크에 거주하는 한 간호사는 사재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못 샀다며 제발 사재기를 멈춰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자 대형마트는 노인과 임산부 등 노약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설정해 운영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다행히 우리는 일찌감치 마스크 대란을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유통비이오부장



겪은 후 마스크 문제는 대체로 안정화됐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기꺼이 제한된 물량을 줄 서서 구매하고 며칠씩 마스크를 재활용하고 있는 덕분이다. 여기에서 재고 부족에 허덕이던 마스크 필터 원료를 정부가 해외에서 찾아내고 삼성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세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십 톤을 확보해 숨통을 틔웠다. 중기부의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기술 지원을 받은 마스크 제조업체 4개사는 하루 생산량이 50%나 급증했다.

사재기도 국내에서는 코로나 사태 초반에만 반짝 일어났을 뿐 전혀 문제가 없다. 마스크는 물론이고 화장지, 식품, 생수 등 수십 년간 국내에서 제조업을 해온 전통과 관록의 내수 기업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 진단키트의 맹활약은 이보다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진단키트를 비롯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방역 시스템은 K바이오와 K의료 등 신한류로 번질 기세다. 문 대통령은 이들이 멀다 하고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용품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진단키트는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양산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몇몇 기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되자마자 적자를 각오하며 발 빠르게 개발과 생산에 나선 결과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 불가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곽시대’ 사교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BBC방송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즉각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서로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람과 물자 간 자유로운 교류가 핵심가치인 세계화의 흐름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의 사재기 현상, 마스크 쟁탈전 등은 자국 우선주의와 반(反)세계화의 전조 증상으로 풀이된다.

반세계화가 번질수록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 동안 전 세계에 자랑한 한국과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어떻게 우리 경제와 미래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hylee@

사설

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면밀한 대비책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금융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의 일시적 어려움은 즉각적인 지원으로 앞으로를 대비토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까지 혈세를 낭비하다가는 국민 부담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쌍용자동차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쌍용차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의 포기를 선언하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산은이 보유한 쌍용차 채권은 1900억 원가량이고, 7월 대출금 9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쌍용차의 전체 차입금 규모는 4100억 원이다. 마힌드라가 앞으로 3개월간 4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결국 한국에서 손을 떼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마힌드라는 총 4억2300만 달러(약 5228억 원)를 쌍용차에 투입해 2022년 회사를 흑자 전환시키겠다고 밝혔었다. 약속한 직접 투자액이 2300억 원이다. 그러나 마힌드라가 이 자금의 수혈을 거부하면서, 쌍용차는 산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생존이 힘든 상태가 됐다. 쌍용차의 실적은 2016년 4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적자다.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의문이다. 산은이 계속 지원한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쌍용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등 외자계 기업이 우선 문제다. 내수시장 정체에, 경직된 노사관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 구조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수요 감소가 가동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의 위기도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진다. 산은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산은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고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 공급과잉에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에도 이미 1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예고했다. 대주주의 고분분담과 자구노력을 제한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고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멸망한 기업의 흑자부도는 막아야 한다.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의 원칙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치적인 논리로 이미 경쟁력을 잃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게까지 무리하게 자금을 쏟아부어 연명시키는 것은 안 된다. 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 조정,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산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큰 그림과 산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대비책이 마련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대량실업 등 많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자금이 구조개혁의 기회일 수 있다.

하유미의 고공비행

산업부 차장



항공업 살리기 ‘수천억 vs 수십조’

사인을 했다. 그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다. 여객 항공사에 250억 달러(30조7000억 원), 화물 항공사에 40억 달러(4조9000억 원), 여기에 협력업체 지원 등 그 외 지원 규모까지 더하면 70조 원이 넘는다.

그 외 상당수 국가들은 국적사에 대한 무한대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 대상 무한대 금융 지원을 비롯해 무이자 대출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도 자국 항공사에 무제한 지원 및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임금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일본 역시 항공사 대상 대출액 상한 없는 용자를 결정했다. 아울러 중국은 항공 인프라 관련 144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금융 지원을, 대만은 국적사 대상 10억 달러(1조1000억 원) 정부 대출을 실행했다. 싱가포르를 국영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에 대해 105억 달러 규모의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그룹으로부터의 28억 달러 대출 등을 신속히 진행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국적사들의 상반기 매출 손실만 6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규모는 3000억 원이 전부였고 지금에서야 대형 항공사(FSC)를

포함해 2조 원 지원을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경제단체까지 나서서 ‘제대로 된, 신속한’ 항공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코로나19 후 항공화물 운송 감소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항공업계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또 한 번 정부에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 역시 “독일은 자국 항공사에 대해 무한대 금융 지원을 발표하는 등 많은 나라들이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과 우리 지원책을 비교했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동시에 총총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지금과 같은 전면적 섰다운 상황에서 매달 1조 원에 육박하는 고정비가 적자로 쌓일 경우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될 경우 당장 일자리 16만 개가 사라지고, GDP 11조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생존의 기로에 선 항공업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긴급·과격 지원책이 당장 필요하다. jscs508@

우리가 할 토막

피다, 꼬드기다, 꼬시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고, 유세차에 탄 채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공약을 힘껏 외치고 있다. 교차로 등에는 현수막과 같은 각종 홍보물이 붙어 있다. 그런데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찬찬히 살펴보니 ‘당선되더라도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끄는 것을 ‘꼬다’ 또는 ‘꼬이다’라고 한다. “그가 내뿜은 약속은 결국 꼬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처럼 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래는 다른 의미였으나, 의미 변화를 거쳐 ‘꼬다’의 뜻을 갖게 된 단어가 있다. ‘꼬드기다’가 그것이다. ‘꼬드기다’는 본디 ‘연 놀이를 할 때, 연이 높이 올라가도록 연줄을 잡아 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을 읽어 연줄을 당겼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여 높이 날게 하는 꼬드기기 기술이 다른 이의 마음을 부추겨 어떤 일을 하도록 끄는 것과 같아 ‘꼬다’

의 뜻을 갖게 되었다. ‘다이어트 중이야. 꼬드기지 마’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또 속된 표현으로 ‘꼬시다’도 있다. ‘고소하다’의 전라·강원·경상도 방언인 ‘꼬시다’는 원래 ‘피다’의 잘못된 표현이었다. 그런데 ‘꼬시다’가 표준어인 ‘피다’보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더 많이 쓰여 국립국어원은 2014년 ‘꼬시다’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지금 나를 꼬시는 거야?”와 같이 쓸 수 있다. 다만 ‘꼬시다’는 속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피다’와 어감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 별도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한편, ‘고소하다’의 방언으로 쓰이는 ‘꼬시다’는 표준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표준어이다.

이렇듯 ‘피다’ ‘꼬드기다’ ‘꼬시다’는 일부 어감상 차이가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꼬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끄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각자 내건 공약들이 당선만을 위한 꾀인지, 진정 지역구를 위한 약속인지 잘 살펴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삼성 제트의 필터과학으로 오늘을 지키세요

댕댕이와 신나게
뛰놀고 들어온 날에도

삼성 제트만의
99.999% 미세먼지 배출 차단 기술과
청정스테이션이 우리집 공기를
언제나 깨끗하게 지켜주니까

*미세먼지 배출 차단 수치는 국제표준(IEC 62885-2:5.11절)에 따라
측정한 지수일 것이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삼성제트



우리집 맑음 가전
삼성가전

청정스테이션

에너지효율 가전 확인하고 환급 혜택 누리세요

*한국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에너지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사업(2020.3.23~12.31, 사업비용 소진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http://rebate.energy.or.kr>) 또는 구매처에 문의 *해당모델에 한함